

## “북한 인권과 자유, 당신의 뜻 이어가겠습니다”

故 손인식 목사 천국환송예배, 온라인으로 전 세계서 3천여 목회자와 성도 참석

북한 인권과 자유, 탈북자 사역에 헌신했던故 손인식 목사의 천국 환송예배가 지난 1일(수) 고인이 23년 동안 목회했던 남가주 얼바인 소재 베델교회(담임 김한요 목사)에서 온라인으로 거행됐다.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규제로 인해 예배당에는 유가족들만 모였지만, 전 세계에서 3천 여명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고인의 천국길을 환송했다.

미국과 한국, 유럽과 동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서 사역을 했던 그의 천국환송예배에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고인의 사랑과 헌신을 추모했다.

한국에서는 할렐루야교회 원로 김상복 목사, 샘물교회 박은조 목사, 새터교회 강철호 목사, 할렐루야교회 김승욱 목사,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 호산나교회 유진소 목사, 지구촌교회 원로 이동원 목사, 장대현교회 임창호 목사가 고인을 추모했고, 나성영락교회 원로 박희민 목사, 미주평안교회 원로 송정명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강준민 목사, 기쁜우리교회 김경진 목사, 실크웨이브



남가주 베델교회에서 거행된故 손인식 목사 천국환송예배

미션 김진영 선교사, 남가주 사랑의교회 노창수 목사, 와싱턴중앙장로교회 류응렬 목사, 새누리교회 손경일 목사, 새장로교회 원영호 목사, 빠리침례교회 이상구 목사, 볼티모어 가든교회 한태일 목사, 은혜한인교회 한기홍 목사, 수잔솔티 여사

등 미주에서도 영상 메시지를 통해 고인의 아름다운 삶을 기억했다. 이날 예배는 베델교회 김한요 목사의 집례로故 손인식 목사와 탈북 인권과 북한 자유화에 힘써 온 본국 정동제일교회 송기성 목사가 “예수님도 울으셨습니다”(히5:7-10)라

는 제목으로 고인의 삶을 기렸다. 송 목사는 “북한 동족들과 탈북민의 고난을 보면서 애통과 기도의 눈물을 흘리신 손 목사님의 눈물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자 한다”며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처럼, 손 목사님은 북녘땅의 동포들과 수많은 탈북민을 생각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을 흘렸다”고 전했다.

그는 “손 목사님은 그 눈물을 가지고 북한 자유와 구원을 위한 통곡기도회를 전 세계에서 일으키셨고, 탈북민들과 북한동족을 위해 함께 울었다”며 “주님께서 그의 통탄의 눈물과 기도를 들으시고 평양에서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통곡기도회를 열 수 있도록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길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유가족들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외부에서 참석해 기도 순서를 맡은 웨스트힐장로교회 원로 김인식 목사는 “손 목사님은 고통 속에 있는 탈북민들을 주의 품으로 인도하시고 꿈을 심어주셨다. 언제나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셨다”며 “이제는 하나님께서 미국과 한국, 전 세계에서 손 목사님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우리 민족의 복음 통일을 위해 일어나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김동욱 기자

## 美 교회들 93% 온라인 전환... 53% “부활절도 온라인 예배”

미국 내 93%의 교회들이 코로나 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오는 부활절에도 대부분의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5일 보도했다.

내슈빌에 위치한 라이프웨이연구소(Lifeway Research)에 따르면, 현장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의 비율이 3월 첫째 주일에는 약 99%였으나, 마지막 주일인 27일에는 7%로 줄어들었다.

라이프웨이연구소의 스콧 맥코넬(Scott McConnell) 이사는 “지역

교회의 예배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근본적인 표현이다. 그러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간염 예방) 완화 조치에 따라, 처음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된 교인이 있는 대형교회, 200명 이상의 교회들은 3월 15일까지 모임을 갖지 않았다. 지침이 계속 변경되면서 3월 22일에는 약 1%의 교회만 현장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밝혔다.

바나그룹(Barna Group)이 발표한 교회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부활절주일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계획이라고 답한 목회자들은 전체의 58%, 실시간 방송을 내보낼 계획이라고 밝힌 목회자들은 45%, 부활절 메시지를 따로 녹화해 내보낼 계획이라고 밝힌 목회자들은 13%였다. 또 응답자의 20%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10%는 야외예배를 드릴 계획이라고 했다. 5%는 색다른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2%만이 평소와 같이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릴 계획이라고 했다. 5%는 적절한 때를 위해 부활절 예배를 연기하겠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3면에 이어서 계속]



미국 내 93% 교회들이 현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미국교회인 베델교회 예배 장면.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 동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그린카피어 리스 & 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 할인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OLYMPIC ZION AUTO**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SE CERTIFIED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Tune-Ups  
 ■ A/C Service  
 \* 월~금 : 8AM~6PM, 토 8AM~4PM \* 32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 (323)730-0112, (323)735-3180**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11:25)  
**예수 부활하셨네!**

## 인랜드 지역 교역자 협의회

우리 지역 교회들은 모두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b>갯스윌연합교회</b> 이희철 목사 주일 오전 8:00, 11:00 904 East D St. Ontario, CA 91764 909-983-0994	<b>남가주헬로쉽교회</b> 박혜성 목사 주일 오전 8:00, 9:40, 11:30 375 N. Towne Ave. Pomona, CA 91767 909-397-5737	<b>두란노교회</b> 손상현 목사 주일 오전 11:00 2474 Kimball Ave. Pomona, CA 91767 909-706-1191	<b>백두암강변선교회</b> 박총길 목사 주일 오전 10:00 2362 Huffstatler St. Fallbrook, CA 92028 909-975-9984	<b>실버미니스트리</b> 최병수 목사 909-802-5857 pyungsuchoe@gmail.com
<b>언약교회</b> 구진모 목사 주일 오전 8:30, 11:00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909-622-8815	<b>에덴선교교회</b> 윤석길 목사 주일 오전 10:50 875 W. Orange Grove Ave. Pomona, CA 91768 951-529-1004	<b>인랜드교회</b> 안 환 목사 주일 오전 7:30, 9:15, 11:45, 1:45 1101 N. Glen Ave. Pomona, CA 91768 909-622-2324	<b>인랜드ANC온누리교회</b> 조강왕 목사 주일 오전 10시(한국어), 11시(English) 9806 Arrow Rt. Rancho Cucamonga, CA 91730 909-945-9191	<b>성경전달사역선교회</b> 최열리 목사 909-605-3027

# 굿네이버스 USA '한 생명 살리기 고난주간 금식운동 캠페인' 실시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아프리카 아동 급식 및 보건 위생, 식수 지원 예정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 USA(회장 이일하)는 2020년 4월 6일(월)부터 12일까지 고난주간을 맞아 심각한 영양실조와 물 부족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고난주간 금식 운동 캠페인을 실시한다.

고난주간 금식 운동은 교회 및 단체 가족단위의 참가자들이 고난주간 동안 하루 한 끼 이상을 금식하며 예수님의 고난의 참된 뜻을 묵상하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후원금과 함께 심각한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아프리카의 아동들에게 전하는 캠페인이다.

굿네이버스 USA는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데, 빈곤층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있다. 실제로 아프리카는 마실 수 있는 물도 부족한 상황에 손을 씻는 예방법도 실시 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아프리카 36개 국가에서 800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물과 위생 시설이 열악한 아프리카에서는 코로나19가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굿네이버스 USA는 또 유엔환경계획(UNEP)과 세계 식량계획(WFP)등의 보고를 인용해 "세계 인

세계빈곤 아동돕기 굿네이버스

## 고난주간 한끼 금식 한생명 살리기

고난주간 금식운동은 성도들이 하루 한끼 이상 금식하여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아프리카의 아동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캠페인입니다.

매년 약300만명의 5세미만 아동이 영양실조로 소중한 생명을 잃습니다.  
하루 800명의 아동이 오염된 물로 인해, 2분에 한 명의 아동이 말라리아로 생명을 잃습니다.

\$10 이면 아이티 아동 1명에게 한 달간 영양식을 지원 할 수 있습니다.  
\$100 이면 100명의 아동들에게 말라리아 치료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5,200 이면 아프리카 참비아에 식수 펌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헌금은 취약국의 아동들을 위한 **급식 및 보건 위생, 식수 지원 사업비**로 사용됩니다.

구의 3분의 1인 22억 명이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만성적인 식량 부족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숫자가 8억 명에 이른다"며 "특히 극심한 식량난으로 인해 고통받는 아프리카 북동부의 3천만명 사람들을 위한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모인 후원금은 취약국의 아동들을 위한 급식 및 보건 위생, 식수 지원 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이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올해는 온라인 [kr.goodneighbors.us/passionweek](http://kr.goodneighbors.us/passionweek)

에서만 참여할 수 있다. 한편 굿네이버스는 아프리카 최빈국 12개 국가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공부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 일하고 있으며 지역사회개발 사업 및 소득증대 사업 등을 통한 지역의 자립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

후원금 체크 보낼 곳:  
Pay to Good Neighbors,  
P.O Box 6086 Orange, CA 92863  
Venmo: @goodneighbors  
문의: 877-499-9898

김동욱 기자

# LA총영사관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철저히 준수해 달라"



LA 코리아타운 중심에 자리잡은 주 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 미주지역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취소

주 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남가주 한인 교민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은 또 "민원실 방문자 수가 하루에 100여 명을 상회하는 등 혼잡이 야기되고 있다"며 "긴급 민원이 아닌 경우 영사관 방문을 자제하고, 긴급한 사정으로 민원실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등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체온 37.5°C(99.5°F) 이상의 발열 증상, 기침, 호흡곤란,

최근 14일 이내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자의 경우 민원실 방문을 삼가고, 자가격리 후 보건당국에 신고하여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코로나19 악화로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미주지역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사무 중지를 결정함에 따라 주 LA총영사관에서 4월 1일부터 6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던 재외투표와 오렌지카운티한인회관, 샌디에이고카운티한인회관 등 추가 투표소 운영도 모두 취소됐다.

4월 2일 현재 캘리포니아 확진자는 9,937명, 사망자는 216명이며, 이 가운데 LA 카운티 확진자는 3,528명 사망자는 66명이다.

김동욱 기자

# 호남향우회, LA평통 등 한인 단체연합 사랑의 마스크 전달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 남가주 호남향우회(회장 양학봉)를 포함한 남가주 한인 사회단체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남가주호남향우회 등 LA 한인단체연합은 지난 1일, 주 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을 방문해 LA 동포사회를 위해 8천달러 상당의 마스크를 전달했으며, 민주평화통일회의 LA 지역협의회(회장 에드워드 구 이하 LA 평통)도 2천달러 상당의 마스크를 기증했다.

LA 평통은 한인 노숙자를 위한 '나눔의 집 쉼터'(김요한 신부)와 LA 노인회(회장 김형호)에 각각 100장



주 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에 8천달러 상당의 마스크를 전달하는 호남향우회 및 LA한인단체연합 ©주 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의 마스크를 전달했으며, 나머지 마스크는 총영사관 민원업무와 LA 동

포사회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American Business Forum 회장 이종권)도 주 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에 마스크 1,000장을 기증했고, 잠코리아USA(대표 브랜든 리)와 칼로바이USA(대표 크리스틴 오)에서도 각각 마스크 500장을 기증하는 등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에 힘을 모았다.

주 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단체 등과 협력해 LA 동포사회를 위한 활동을 지속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며 "동포 여러분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동욱 기자

캘리포니아주 의료보험 의무화 및 미가입 벌금에 대비하세요!

**CMMI 기독교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Since 1996 Operated by Logos Missions, Inc.

\*미국내 의사, 병원 제한 없고, 한국은 물론 전세계에서 발생한 의료비 지원

문의: 이사라 213.318.0020 [www.cmmllogos.org](http://www.cmmllogos.org)

**코엠 커뮤니티 센터**  
KOAM Christian Community Outreach Center

저렴한 비용으로 도와드립니다.

- 비영리단체등록
- 비영리 단체 세금 보고
- 특허
- 주 교육국(인준) 상담해 드림

**David Lee (213)422-8916, (818)523-1119**

**2020 - 2021 학년도 장학생 모집 공고**

Senior Pastor Rev. Gyeong Jin Kim

기쁜우리교회 장학위원회 (Scholarship Committee of Joyful Christian Community Church) 에서 크리스천 학생들의 지속적인 학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 3기 기쁜우리교회 장학생들을 다음과 같이 선발합니다.

- |   |   |
|---|---|
| <p><b>신청 대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 주소지 혹은 학교가 Southern California 인 정규 4년제 대학(원)생</li> <li>Categories: i)General ii)PK &amp; MK iii)Seminary</li> </ul> | <p><b>선발 일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서 접수기간: 2020년 3월 15일 ~ 4월 26일</li> <li>선발 결과 발표: 2020년 7월 12일 예정</li> <li>장학금 수여식: 2020년 8월 중순 예정 (추후 발표)</li> </ul> |
|---|---|

**선발 인원** 00명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기쁜우리교회 홈페이지 [www.joyfulccc.org](http://www.joyfulccc.org)를 통해 자세한 신청 안내 받으시고 원서접수는 [scholarship2020@joyfulccc.org](mailto:scholarship2020@joyfulccc.org)로 하시거나 아래 주소로 우편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ATTN: Scholarship Committee**  
Joyful Christian Community Church  
P.O. Box 270, Glendale, CA 91209

# 남가주 한인교회에도 '드라이브 인(drive-in) 예배 등장

## 뉴크리에이션교회, 금주 부활절 예배와 성찬식 진행 예정



주보를 하나씩 가진 성도들이 각자 차 안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다



주일 예배 찬양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 내 여러 교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 유지하면서도,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마련한 '드라이브 인'(drive-in) 예배가 남가주 한인교회에서도 진행될 눈길을 끈다.

뉴크리에이션교회(담임 김관중 목사, 구 새창조교회)는 지난달 29일부터 '드라이브 인'(drive-in) 예배를 적용해 평소와 다름없이 두 번의 주일예배를 진행하고 있다.

교회 성도들은 예전과 다름없이 차를 타고 교회로 들어와 금주의 주보를 집어 들고 안내 봉사자들의 지도에 따라 주차장에 마련된 각자의 자리에 안전하게 주차를 했다. 그리고 FM-90.5로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 찬양하고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들었다. 영어권 성도들을 위해 담임 목사의 설교가 동시통역됐다. 특별히 찬양을 할 때는 운전자 쪽 창문만 열고 서로의 목소리를 들으며 큰 소리로 합창했다.

'드라이브 인' 예배 준비에 따른 비용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다른 음향 장비는 기존에 교회가 사용하던 장비를 그대로 사용하고, 70미터까지 사용이 가능한 '근거리 FM 주파수 송출기' 구입에 130달러를 썼다.

성도들의 반응은 '대환영'이었다. '드라이브 인' 예배로 전환 후에도 평소 예배 참석자 대부분이 참석했다. 비록 차 안에서지만 서로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모이기 어려운 상황에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감격이 컸다.

드라이브인 예배가 어색할 것 같아 보이는 연세 지긋한 어르신들도 "오히려 차 안에서 소리를 마음껏 조절할 수 있어, 설교 내용이 더 분명하게 들린다"고 만족해했다.

뉴크리에이션교회는 이번 주로 예정되어 있는 부활절도 '드라이브 인' 예배로 드릴 예정이다. 부활절에 잊지 않고 진행되던 성찬식도 일정에 포함됐다. 주차장에 들어오면

서 주보와 함께 각자의 빵과 포도주를 갖도록 했다.

김관중 목사는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된다"며 "(드라이브 인)예배는) 방역을 위한 정부 지침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김동욱 기자  
주소 : 23814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문의 : (310) 212-6369

## 태평양 법률협회 "코로나19로 교회 문 닫게하는 것은 위험"



지난해 9월, 법과교회 세미나를 진행하는 태평양법률협회 대표 브래드 대쿠스와 한국 디렉터 주성철 목사

태평양 법률협회는 지난 2일, 캘리포니아 교회 예배 모임의 법률적 자문에 대한 전화 컨퍼런스를 갖고 "COVID19을 통해 범법화해서 교회와 회당의 문을 닫게 하는 것은 위험"이라고 강조했다.

태평양 법률협회는 "최근 정부에서 많은 법령을 제정하면서 교회에 피해를 주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뉴욕시 시장은 모임을 금지하기 위해 교회와 회당을 걸어 잠근다고 위협까지 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한 법을 제정해서 사람들이 따르게 하는 것은 좋고, 교회도 역시 자신

해서 규례를 지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것을 범법화해서 교회와 회당의 문을 닫게 하는 것은 위험"이라고 밝혔다.

태평양 법률협회는 이어 "우리 협회는 혹시 이런 일이 교회나 회당에

서 일어나면 얼마든지 케이스를 다룰 의향이 있다"며 "교회 지도자들은 본 협회 웹사이트에서 COVID19에 대한 각 주에 해당하는 법령과 관련해서 정보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다"고 전했다.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통일선교도서**

빛은 그로 외면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3만 5천부가 판매된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원/영)과 수록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북한 건부 출신의 자전적 스토리와 지휘성도들의 순교증언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기적같은 여정이고, 우리에게 복음통일의 관수라는 분명한 메시지의 울림이다.

• 채크오더링: GBMW 모든 기부금은 세금공제의 혜택을 받는 세금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GBMW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425)775-7477 gbmwu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1면 "美 교회들 93% 온라인 전환..." 이어]

라이프닷컴교회 혁신 책임자이자 유버전 성경앱 개발자이기도 한 바비 그루엔왈드(Bobby Gruenwald) 목사는 최근 처치펄스(Church Pulse) 주간 방송에서 "만약 여러분이 목회자로서 부활절 메시지를 특별하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메시지에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안에 어느 정도 예배의 측면을 포함시킬 수 있다면 매우 좋다. 여러분의 물리적 환경 안에서 동일한 경험이 될 필요는 없다... 그것이 어떻게 보이든 현재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더 그러한 상태다. 난 부활절을 위해 만들어진 영상에 예배의 일부분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또 과거에 실시간 방송을 해본

경험이 없는 교회들도 이제 방송을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프웨이연구소에 따르면, 미국 개신교 목회자들 중 41%는 작년 가을까지만 해도 교인들에게 영상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교회 담임 목회자들 중 92%는 3월부터 영상 설교와 온라인 예배를 제공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맥코넬 이사는 "영상 콘텐츠 제공의 신속한 채택은 현장 모임의 중단 만큼이나 갑작스러운 것이었다. 실시간이나 영상 옵션 제공을 전혀 고려하지 않던 교회들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목회자들은 이 힘든 시기에 성도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영적인 지도를 해야 했다"고 전했다.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타일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안녕하세요? 18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들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날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현천히 다 돌리면서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8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APPLY or TRANSFER NOW

GOD FIRST SINCE 1899

**AZUSA PACIFIC UNIVERSITY**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한국어 프로그램**

**LA · 오렌지 캠퍼스**  
**ONLINE COMING SOON**

- 목회학 (MAPS)
- 목회학 석사 (M.Div)
- 목회학 박사 (D.Min)

Phone: (626) 857-2200 Email: koreanprogram@apu.edu www.apu.edu/seminary/korean-program

✉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152**

**“열방의 선교 서신들을 읽으며 얻는 기쁨”**

인터넷과 스마트 폰 SNS 등을 통해 수많은 소식들을 접하고 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코비드 19 사태로 인해 가택 거주 시간이 많아져서 더욱 많은 소식들을 전하고 받고 있다. 열방의 선교사들에게서도 사역지의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다. 기도제목들도 넘친다. 긴급기도 제목으로 어린 선교사 자녀들(MK)의 발병 소식과 함께 긴급기도 제목이 많이 뜬다.



**이 상 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MBB 청년들은 조심스럽게 이동하며 식수나 마스크가 없는 형제들을 찾아가 생필품들을 전하고 일대일로 복음을 씬 없이 전하며 지내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선교사들이 미리 가르치고 알려주지 않은 상태였지만 자신들이 선교사들 못까지 감당하고자 하는 사명감이 더욱 강해졌다는 소식에 모든 연합 기도자들이 함께 기뻐하였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선교편지에도 현지 MBB 성도들이 고구마 빵을 만들어 음식이 부족한 시골 마을로 가서 빵을 나누어주며 현지의 어려운 이웃들을 격려하고 봉사하며 지내고 있었다.

각국에서 전해져 온 소식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자기들도 부족하지만 무언가 나누고, 봉사하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들로 채워져 있음을 전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고난 중에 역사하고 있음에 감사한다.

필자의 선교단체는 무슬림권 현지인 청년 리더십들이 각 나라를 망라해서 SNS 네트워크가 잘되어 있다. 이집트, 터키, 조지아, 레바논, 파키스탄, 인도 등등 아랍권 전체에서 비전스쿨이 대부분 동영상 학교로 열리고 있다. 비전스쿨 커리큘럼을 동영상으로 모두 진행하고 있는데 참여하는 수가 과거 때의 인원과 비슷할 정도로 참여하며 모두가 한결같은 소망의 마음으로 6월과 7월 비전스쿨을 수료하고 이웃 다른 나라로 단기선교 파송받기를 희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음을 전한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열방에 선교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온 열방의 선교 동역자들이 지금도 열심히 기도드리고 있다. 이 복음 증거의 길은 세상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없음을 우리는 믿고 오늘도 부활의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고 있다.

혹시나 하는 염려 속에 세계 각국의 선교팀 네트워크를 통해 인터넷 상으로 발똥 같은 기도들이 올라온다. 며칠이 지나 병이 다 나았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으면 감사하며 안도의 숨들을 돌리지만 계속 고열에 몸살 증세를 보이는 날이 길어지면 모두가 긴장하며 더욱 기도한다.

세계가 참으로 가깝다는 느낌이 들었다. 어려운 중이지만 열방의 많은 선교사, 현지 교인들은 미국이 세계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고 사망자도 점점 늘어난다는 소식들을 접하며 열방의 영혼들이 눈물로 미국을 위해 기도한다는 소식도 듣는다. “미국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그들이 지은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주님! 용서해 주소서”하며 기도하는 현지의 청년들도 있다 한다. 그 소리를 들으며 필자도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우리가 지은 죄를 그들도 알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 보았다.

선교사들에게서 온 선교편지 내용 중에 참 반갑고 기쁜 소식들이 있었다.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사이는 붙어 있으나 높은 장벽으로 막혀 있는 상태다. 몇 군데 통과하는 체크포인트로 출입을 하는 데 지난 몇 주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통행이 폐쇄되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다스리고 베들레헴은 팔레스타인 자치기구가 다스린다. 우리 선교사들도 예루살렘팀과 베들레헴팀들이 왕래하지 못해 어려움 속에 있다. 그러는 중에 베들레헴 선교팀에게서 먼저 편지가 왔다. 특히 선교사들은 바깥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라 사역의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현지인 팔레스타인 믿음의 청년들(MBB-무슬림 백그라운드 빌리버의 약자)이 어려운 중에도 복음 증거의 사역을 이전보다 더욱 열심히 한다고 한다. 선교사들과는 전화를 통해 다들 연락하면서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행복 만들기 (11) 실패

**실패의 가치를 알자!**

모든 사람이 성공과 만족을 기대하지만 실패의 날들이 성공의 날들보다 더 많습니다. 사노라면 실패하는 날, 넘어지는 날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성공은 실패 속에 있으며, 실패를 통해서 성공이 옵니다. 어쩌면 성공의 객차는 실패의 기관차에 이끌려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은 실패를 싫어합니다. 실패가 주는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실패의 의미를 찾고 실패를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 태 광** 목사  
월드쉐어 USA

공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조니 뎀, 마이클 잭슨, 폴 매카트니, 빅토리아 베컴 등 세계적인 스타를 찍는 한국인 사진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현재 비틀스 멤버요 세계적 가수인 폴 매카트니경(Sir Paul McCartney)의 전속 사진작가 김명중(MJ Kim)씨입니다. 그는 까다로운 폴 매카트니에게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분야 최고의 사진작가입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 “오늘도 인생을 찍습니다.”에서 자신의 성공 이유가 세 번의 중요한 실패라고 말합니다. 그는 3번의 큰 실패(대학 입학 실패, 미국 유학 실패, 대학 졸업 실패)로 자신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고, 그 실패들 때문에 계약서를 망쳤습니다. 몇 번씩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지만 고객은 화를 내며 보험계약을 거부했습니다. 행복의 정점에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아픔을 겪은 Waterman은 그 아픔을 통해 잉크가 흘러내리지 않는 펜을 개발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Waterman 만년필입니다.

그의 실패는 아팠지만 그 아픔을 딛고 일어난 용기와 성공은 크고 위대했습니다. Waterman의 성공과 영광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Waterman 노력을 기울인 결과입니다. 그는 처절한 실패의 자리에 위대한 성공의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실패가 주는 쓴맛은 쓰리고 아프지만 실패는 성

망히 할 일이 없어서 사진기자로 취업합니다. 그는 현재 영향력 있는 사진작가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는 실패를 통해서 성공을 얻었습니다. 김명중의 성공 이유는 거둬진 실패에 굴하지 않고 새 길을 찾아가는 끈기, 유연한 마음가짐 그리고 도전 정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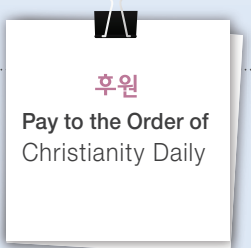
1978년 뉴저지에 사는 가난한 러시아 출신 청년 버니 마르커스는 철물 소매상에서 일하다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동업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업은 일반 사람들이 스스로 집안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들은 1979년 애틀랜타 근교 마리에타에서 홈 디포(Home Depot) 가게를 열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15만 7,000명이 넘는 종업원에 760개가 넘는 점포에 매년 300억 불이 넘는 홈 디포의 시작입니다. 버니 마르커스는 해고당했을 때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해고는 실패가 없었더라면 오늘날 성공은 없었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매년 ‘실패 박람회’가 열립니다. 실패 경험이 성장의 발판이 되는 사회 구현이라는 모토로 중소기업부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행사 안내판에 ‘국민의 다양한 실패사례를 공유하고 공감하는 장을 마련하여 실패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유도하고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는 행사다’라고 행사 의미를 소개합니다.

건강한 사회는 실패를 소중히 여깁니다. 건강한 사회는 실패자를 다독이고 일어나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성숙한 사람은 실패의 가치를 알고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활용하고 실패로부터 배웁니다. 실패는 우리 인생을 담금질하는 탁월한 조건사입니다. 코로나는 우리 모두를 실패자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실패 너머에서 기다리는 성공과 행복을 기대하며 실패의 순간을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 사 장 : 존 킴 고문번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을 밝히는 World Share가 바로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당신의 일부를 나누면 한 아이의 인생 전부가 바뀝니다.**

**World share USA**는 국제 구호 NGO 단체입니다. 월드쉐어 USA는 UN과 함께합니다. 월드쉐어 USA는 질병과 기아에서 허덕이는 고아와 절대 빈곤 아동들을 사랑으로 후원합니다.

한 달에 **30불, 35불** 소액 회원 가입으로 생명을 살리는 축복을 누리세요!



**World Share USA**  
3123 W 8th St, #206, LA CA 90005

후원 문의: 강태광 목사 T.(323)578-7933, (213)318-5227

# 김인식 목사 “故 손인식 목사의 북한인권 열정 이어가야”

“북한의 끔찍한 독재가 끝나고 문이 열리면 살아남 사람들은 지하 기독교인들이요, 정치범수용소에 갇힌 자들이겠지만 그날 가장 수치와 모욕을 겪어야 할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기독교인들일지 모릅니다.故 손인식 목사의 이 같은 외침을 늘 우리 가슴속에 새기고 북한에 있는 우리 동족들이 자유를 얻는 그 날까지 뜨거운 열정을 이어받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김인식 목사

평생 북한 인권 개선과 선교를 위해 헌신해 왔던 故 손인식 목사에 대한 미주 한인교계와 한국의 교계에서 추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날까지 선교연합 공동대표 김인식 목사(웨스트힐장로교회 원로목사)가 고인의 열정을 우리 가슴에

이어나갈 것을 당부했다.

김인식 목사는 고인에 대해 “이민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로 성장시킨 훌륭한 목회자이자, 이에 머무르

지 않고 동족 구원을 위한 제사장 교회의 사명을 일깨운 선각자”라고 기억했다.

김인식 목사는 ‘북한자유를 위한 한국교회연합’(KCC)의 출범 배경에 대해서도 故 손인식 목사의 열정이 주변 목회자들을 일깨웠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인식 목사는 “안정적인 목회의 자리에 있었지만 북한 동족에 대한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느끼고 있었고 이 열정이 주변의 목회자들에게 불을 지폈다”면서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호응하며 뜨거운 통곡기도회가 시작된 것은 바로 고인의 뜨거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식 목사는 특히 2004년 LA 집회를 중요한 기점이라고 지목했다. 9월에 목회자 1600명이 모였는

데 이 때 많은 목회자들이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북한과 평양이 열리는 그날까지 이 운동을 지속하자고 다짐했고 이 때부터 ‘그날까지 선교연합’UTD(Until The Day)-KCC이 시작됐다. 당시에 대해 김인식 목사는 “당시 북한 동족 해방과 구원을 위해 부르짖는 눈물의 통곡기도는 천둥이 치는 듯 강력하여 참성한 스스로들도 놀랐다”면서 “이 기도회 중에 상원에 계류되어 있던 북한인권법안이 통과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도 했다”고 간증했다.

‘그날까지 선교연합’의 정신에 대해서도 “2004년 당시 리더들은 미국무부에서 지원하겠다는 70만불을 거절하고 정치성을 배제한 기독교인들의 순수한 기도운동으로 이끌어 나가려 했다”면서 “전 세계 교

회들과 함께 오랜 세월 짐승 취급을 받으며 노예 상태로 고통과 굶주림 속에 있는 북녘 동포들을 구원하도록 역사의 주인이신 전능자 하나님께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연합기도운동으로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식 목사는 “한국교회가 지금 외치지 않으면 북한 해방의 날에 부끄러운 죄책감에 시달릴 것인데, 이는 평소 고인이 강조했던 내용”이라면서 “故 손인식 목사는 북한의 상황이 내일을 모르는 급변과 격변 속에 들어가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미주와 한국의 교회가 북한 지하성도들과 정치범감제수용소를 포함한 동족들의 해방과 구원을 위해 일

어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 코로나사태로 전세계인 ‘기도’ 더 찾는다... 구글 검색 급증



기도하는 모습. ©pixabay

### ‘기도’ 검색 빈도 2배 이상 증가

코로나19가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가운데, 구글에서 ‘기도’를 검색하는 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코펜하겐대학교 조교수이자 종교경제문화연구협회 사무총장인 자넷 사인딩 벤첸(Jeanet Sinding Bentzen) 박사는 30일 “위기에 우리는 기도한다: 종교성과 코로나19 팬데믹”(In Crisis, We Pray: Religiosity and the COVID-19 Pandemic)이라는 제목의 논문 초안을 공개했다.

벤첸 박사는 75개국에서 기도(prayer)에 관한 검색을 분석한 뒤,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8만 명씩 증가하는 가운데 기도를 검색하는 빈도가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벤첸 박사는 “3월 한 달 동안 기도에 대한 검색은 지난 5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기도에 대한 검색이 집중되는 크리스마스, 부활절, 라마단 기간의 그것을 훨씬 능가한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지금, 기도에 대한 집중적인 검색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는 전 대륙에서, 기독교인이나 무슬림 모두에게 해당됐다. 지난 5년간 구글 검색 데이터에 따르면, 종교인들의 수가 가장

적은 국가 중 하나인 덴마크에서도 기도에 대한 검색이 체계적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증가는 사망률이 오르는 것보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것과 일치했다. 또 최근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도 기도 검색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한편 최근 미국 내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되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다. 조엘 오스틴 목사가 시무하는레이크우드교회나 로버트 제프리스 목사의 달라스 제일침례교회 등 대형교회의 경우, 온라인 예배 참석자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욱 기자

## 코로나 19 확산에 영성 각성 위한 회개, 의료계 종사자 위해 기도

### CMF 선교회 4월 정기예배 진행



CMF 선교회 4월 정기예배에서 설교하는 엄영민 목사

CMF 선교회(대표 김철민 장로)는 지난 4일 CMF 선교원 대강당에서 4월 정기 예배 및 모임을 갖고 미국의 영적 부흥과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한 기도회를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 참석자들은 미국의 영적 각성을 위한 회개 기도와 함께 한국 교회와 전 세계 선교사를 위해 기도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계 종사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다.

김철민 장로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는 제프 김 선교사(영국)가 대표로 기도하고, 전 KAPC총회장 엄영민 목사가 “여호와여 내 마음이”(시편 131편 1-3절)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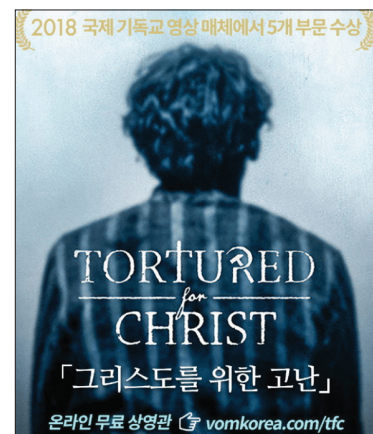
엄 목사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주님과 교제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세 힘을 받아 맡겨진 사역에 힘 있게 쓰임 받도록 하자”고 설교했다.

김동욱 기자

## 영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고난주간 무료 상영

이번 고난 주간엔 한국 VOM은 국제 영화제 수상작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Tortured for Christ)’을 온라인으로 무료 상영할 예정이다. 기간은 4월 5일부터 4월 11일 자정까지다. 이 기간에 [www.vomkorea.com/tfc](http://www.vomkorea.com/tfc)에 접속하면 이 영화를 시청할 수 있다.

노형구 기자



# 2020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중준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http://www.irus.edu), [office@irus.edu](mailto: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회(BA), 목회학사(M.Div), 상담학사, 선교학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경호 박사 71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이사장: 조종근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http://www.aeu.edu/info@aeu.edu), [seumaster@gmail.com](mailto:seumaster@gmail.com)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mailto: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http://www.ptsa.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http://www.wmu.edu), [admissions@wmu.edu](mailto: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http://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mailto: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24 / [KEB@GGTS.EDU](mailto:KEB@GGTS.EDU)  
[WWW.GGBTSE.EDU](http://WWW.GGBTSE.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mailto:admissions@gm.edu), [www.gm.edu](http://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 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626)857-2200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http://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mailto:chdailya@gmail.com)

# 예수 부활하셨네

## “삼일의 기적!”



박상목 목사(오렌지 카운티 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상당히 오래전에 읽었던 ‘삼일의 약속’(The Three Day Promise)이란 책이 생각납니다. 저자는 재미작가인 정동규 씨로 6.25 사변이 터지자 북한에 가족을 남겨두고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특히 사랑하는 어머니와 헤어질 때 “삼일 만에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남북이산가족이 되면서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이후 미국으로 이민 와서 갖은 역경 끝에 메디칼 스쿨을 졸업하고 심장 전문의가 되었으나 마음속에 품고 있던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며 백방으로 노력한 결과 1983년 드디어 북한을 방문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33년 만에 찾아간 고향에서 그리운 가족 몇 사람은 만났지만 꿈에 그리던 어머니는 더 이상 계시지 않았습니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지키지 못한 약속의 아쉬움을 안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 쓴 책이 ‘삼일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정동규 씨와는 달랐습니다. 삼일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이야말로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삼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 하셨습니다. 그리고 삼일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약속을 확실히 지키셨습니다. 죄와 죽음과 마귀를 물리치시고 삼일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이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험한 십자가는 죄에 대한 승리요, 병에 대한 승리요, 세상에 대한 승리요, 마귀에 대한 승리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고난도 고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터널의 시작이 있지만 끝도 있습니다. 지금 위세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권세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삶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일상은 분명 지난날과는 다를 것입니다. 미래학자들 간에도 세계 역사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부활 이후 성도의 삶 역시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니다.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축복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축복에 대해 요 14:2-3절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천국에서의 영생의 삶이란 축복입니다.

믿는 이들도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부활의 약속이 주어졌으며, 더 나아가 천국에서 영생을 소유한 백성으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죽음 뒤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히 9:27절의 경고를 들어보십시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은 뒤에는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 번 감사해야 할 약속이 요 5:24절에 들어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러니까 살아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는 이들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에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한 알의 밀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땅에 떨어져야 하고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이고 성도의 길입니다.

2020년도 부활절은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활의 영광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삼일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축복의 약속입니다.

## COVID-19 과 함께 하는 고난주와 부활절



장경일 목사(사우스 베이 목사회 회장)

2020년도 COVID-19 사태로 수많은 분들이 감염이 되고 있고 수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과 사업체의 어려움을 통해 경제적인 COVID-19 또한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십니다. COVID-19과 함께 하는 고난주와 부활절, 정말로 모든 기독교인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아니 주님을 뵈는 그 날까지 내면에 간직해야 할 소중한들이 많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홀로 있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분주할 때때로 중요함을 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많다는 것입니다. 외면의 모습보다 내면의 순결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전염병 앞에서 한 없이 연약해지는 인간의 모습을 봅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말씀과 기도로 인도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번 한국에 Corona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어떤 의사의 말입니다. ‘우리는 전염병 앞에서 겸손해야 상황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마음에 닿았습니다. 그렇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에게 고백해야 한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그분의 언약을 잡고 그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언약이 생각납니다.(약 4:6) 그리고 이 같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고난주와 부활절이 되게 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이다.(시 50:15)

그러나 하면 우리는 이제 손을 하루에도 몇십 번 씻고 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기 시작하려 하시자 완강

히 거부했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요 13:8)’ 하셨습니다. 성격 급하고 열정이 많았던 베드로는 그렇다면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요 13:9)’라고 답하지요. 이 베드로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목욕한 자는 발 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요 13:10)’ 하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물론 우리는 발을 씻지는 않지만 수 많이 손을 씻으면서 발을 씻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며 기독교인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 또한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를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요즘 고요 안에 폭풍을 경험하고 폭풍 가운데 평강을 경험합니다. 주위는 고요한데 사태를 생각하면 폭풍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폭풍 가운데 말씀이 들어오니 평강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녕히 내가 광야에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사 43:19)’.

COVID-19 사태 후에는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새로운 법들과 새로운 생활 방식이 등장할 것입니다. 물론, 정확히 어떤 법과 생활방식일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태를 통해 신앙인들의 광야 같은 마음에 길을 내시고 사막 같은 마음에 강을 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과 강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 뒤에 생명이 있음을 부활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주로 영접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 안에 기독교인이 된 것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지혜롭고 순결하십시오 이번 사태를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 부활은 죽음을 넘어선 생명



김진구 목사(벤추라 교역자협의회 회장)

다가오는 4월 12일은 기독교에 중요한 절기 중 하나인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올해에 맞이하는 부활절은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 예년과는 다른 모습을 갖게 되고 그러므로 조금 더 깊은 의미를 생각하게 합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부활 신앙이 현재 코로나 19의 문제에 어떤 대답을 줄 수 있을까요?

헤르만 바빙크는 ‘하나님의 주권은 영혼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연과 역사의 모든 부분을 수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이해가 어느 선까지 작용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계시는 만물 안에 존재하지만 우리가 눈을 감고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깨달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눈으로 본다고 해서 모두가 바른 이해를 갖는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해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함을 전제에 두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두 축을 붙들고 갑니다. 십자가가 죽음이라면, 부활은 생명입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단절과 허무와 탄식과 불가능의 현상이었다면 부활은 그들에게 생명과 경이로움과 감사의 자리입니다.

부활신앙이란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하는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류 역사 속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생소하고 낯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이해하려면 먼저 죽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단절입니다. 우리의 익숙했던 모든 것에서의 단절입니다. 숨 쉬는 것, 먹고 마시는 것, 기쁨과 슬픔의 감정까지 부활이란 어떤 의미에서 그 모든 단절에서 다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이란 죽음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님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게 될 때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부활 신앙이 우리의 경험과 사고, 이해의 장벽을 깨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 지금 내가 탄식하는 것, 지금 내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 내가 절망하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부활이 이 경험을 우리에게 열어 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마주하는 현실이 어둡고 무거울지라도, 그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사실을 알려주면서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왜 기쁜 소식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오열하고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사건은 죽음을 넘어선 사건입니다. 생명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인간이 스스로 만든 차별의 경계를 넘어섭니다. 인종과 사상, (편견)의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빈부의 경계를 초월합니다. 진정한 나눔을 실천합니다. 그럴 때 참된 살림이 이루어집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니 너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손을 붙잡는 것, 이 아름다운 세계의 생명들을 누리고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예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소망하며 사는 성도의 삶이라 생각해 봅니다.

##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희철 목사(인랜드 교역자협의회 회장)

2020년 부활절 예배는 가정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 기억에 부활절 예배를 가정에서 각자 드린 적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요? 저희 인랜드교역자협의회에서도 3월 초에 모든 목사님들의 의견으로 올해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를 취소하였습니다. 대신에 12월 성탄 예배를 더욱 의미 있는 성탄연합축하예배로 드리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여느 교회처럼 저희 교회에서도 주일예배를 오전 8시에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하고 녹화하여 11시에 다시 유튜브로 링크하여 교인들이 함께 보면서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수의 스태프만 참여하여 주일 8시 예배를 드립니다.

교우들이 아닌 텃밭 예배당의 자들을 보면서, 대면이 아니라 화면을 보면서,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드릴 성도들을 마음에 그리면서,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러니 뭔가 묘한 감정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숨길 수 없습니다. 부활주일엔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을까 내심 기대도 했지만, 남가주와 미국의 코로나 사태가 아직 만만치 않습니다.

왜 하필이면 코로나 바이러스인가? 코로나는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많은 곳에 코로나라는 이름이 명명되어있었습니다. 면류관! 왜 이 아름다운 이름이 바이러스에 붙여졌을까요?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집사 스테반의 이름도 면류관이었습니다. 스테반의 순

교 이후 큰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 있던 많은 교회들이 사도 외에는 다 흩어지게 됩니다. 집으로 갑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핍박과 죽음 그리고 흩어짐이 면류관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쓰신 것이 가시 면류관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면류관이 가시로 되어있었단지요? 만왕의 왕의 상징이 가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에 찔려 머리에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 셧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교우들과 목회자들의 마음이 가시에 찔린 것처럼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테반(면류관=코로나)을 통하여 교회와 교우들을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으 셧습니다(행 8:1). 초대교회가 이제는 무서운 핍박 때문에 각 가정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마케도니아 아가야 소아시아와 로마 등 땅 끝까지 흩어진 가정들이 교회의 씨앗이 됩니다. 흩어진 가정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게 되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됩니다.

코로나 사태가 우리의 모든 것을 찌르는 아픈 일이 되었지만 가시 면류관 없이 부활이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우리를 교회에서 집으로 흩어지게 하는 것은 우리의 가시 면류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삼 일 후에 가시 면류관을 금 면류관(계 14:14)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는 일과 전도하는 일(행 5:42)을 쉬지 맙시다. 그치지 맙시다. 2020년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흩어진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 프랭클린 그레함, “코로나 팬데믹은 타락한 세상의 결과”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 ©빌리그레함복음주의협회 제공

미국 복음주의 지도자인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에 대해 “타락한 세상”에 존재하는 “죄의 결과”라고 말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독교 인도주의 단체인 사마리아의 지갑(Samaritan's Purse)의 그레함 회장은 지난 토요일 폭스뉴스 지니 피로(Jenie Piro)와 인터뷰를 가졌다.

그레함 목사는 인터뷰에서 “이 팬데믹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타락한 세상의 결과”이며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기도하도록 격려할 것이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허락하셨나”는 질문에 그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계획하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것은 세상의 죄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인간은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 그분께 죄를 지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美 기독교인들, 각 지역 병원 주변에서 의료진과 환자 위해 기도 미국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수가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 기독교인들은 조지아주의 올버니시, 플로리다 키시미시, 앨라배마주의 알렉산더시에 위치한 병원 밖에 모여 다함께 손을 뻗어 기도하는 플래시몹을 전개했고 해당 영상들은 곳곳에 퍼지며 많은 이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 Joshua Lutz reppnforchrist.com

# “北 강제수용소, 코로나19 우려 심각... 수감자 석방해야”



CTS에서 설교 특강을 진행중인 김명현 박사

## 美 국제종교자유 대사, 코로나19와 종교적 소수 관련 기자회견서 밝혀

북한 내 강제수용소 수감자들이 코로나19에 노출돼 있기에 이들을 석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 국무부 샘 브라운백(Sam Brownback) 국제종교자유대사는 2일 ‘종교적 소수집단에 미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주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수용소 수감자) 숫자는 매우 많다”며 “그들은 코로나19에 심하게 노출돼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과밀하고 비위생적 상태로 악명이 높은 이란의 교도소를 언급하며, “탈북자들의 보고와 증언을 근거로 북한은 이란

과 비슷한 나라 중 한 곳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면서 “이 같은 일이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정부들에 의해 용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수용소에서 탈출한 이들, 탈북민들의 목격담 등을 기반으로 이 같은 내용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브라운백 대사는 “종교적 수감자는 ‘처음부터 감옥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 이 전염병이 유행하는 때에 그들은 석방되어야 한다. 이는 좋은 건강 습관이며 옳은 일’이라며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종교적 소수자들의 책임이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해야 한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에배 오후 2:00  
영혼의심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회차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 245-6616

주일예배 오전 11:00  
평일예배 오전 11:00  
평일예배 오후 7:00  
평일예배 오후 7:00  
토요일예배 오전 9:00

**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내세대에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20(월, 금)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토) 오전 6:20(토)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일(토)오전(수) 오후 7:30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어린2세를 세례하며, 이방이민을 치유하며, 선교를 영감을 주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 Edin 코너)  
T. (213) 386-2233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 - 토)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h. #412 (6가와 카탈리나), LA, CA 90020  
T. (213) 909-6473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3:3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교대

1340 E 6th St, #419, LA, CA 90021  
T. (310) 905-2228 / newchurchdtda.com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합세회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 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토)  
3부예배 오후 2:00 유초등부 오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0:30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그리스도와 / 성도와 / 이웃과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토) 오전 6: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눔과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9:00 성인 EOM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11:00 한이청년예배 오후 12:30  
찬양예배 주일오후 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치유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 11:00

**차성구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 되어 십자가 복음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주일 1부예배 (분당)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분당)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주요찬양예배 (분당) 저녁 8:30 새벽기도회(월, 금) 오전 5:30  
리셋에델리엔에(소매예배) 오전 11:0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87-1700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라디오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후 6:30(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흠뻑 소, 초, 초 정신인 흠뻑, 바른교회관의 흠뻑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 예배 오전 10:30  
2부 예배 오후 1:30  
성경 공부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 금) 신묘모나카 만리부 지역 유일한 한인교회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나카한인교회**  
영혼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502-9999 / www.smkc.us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 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 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 LA 동부,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여호와를 찾을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갈라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월, 화) 오전 6: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내심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 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토)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월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조용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안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을강해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6:30(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 / inlandchurch.org

**고송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교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이훈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조준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기도회 오후 7:30 오전 6:30(토)  
중국어 성경공부 오후 7:30(화) 汉语圣经班: 周二晚上: 七点半

**치노밸리 아름다운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714)461-6412

**송재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금요일(아침)예배 오후 7:00(금)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지된 삶을 실현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7:00 JCO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9:00 JCOCC 10:15, 오후 12:45 (교육관)  
주일 3부 오전 11:00 EM 오전 11:15 (교육관)  
Blended Service  
사랑부 오전 8:45 (교육관)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리 내 길에 빛이로이다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org

**이정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중교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아침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방수민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중교등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윤대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오전 9:30 사랑의 빛 반 주일오전 11:30  
주일 3부 오전 11: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젊은이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www.lolmc.org

**오명찬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 찬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곽덕근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최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MP예배 333 S. Garfield Ave., Monterey Park, CA 91754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성령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후 1:30  
금요성령예배 오전 7:30 주일 성령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00(토) 688 Altos Ave., Monterey Park, CA 91753  
1914 Rhoads St., Northridge, CA 91326 청년부 동공 오전 5:30(토) 오전 6:00  
T. (818)936-5867 Tlx: 333-937-3900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민중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사우스베이, 토렌스**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교등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신태섭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유중등부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중교등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주부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가디나 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310)217-9191 www.gpclove.com

**이석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EM Bible Study 오후 7:30  
3부예배(EM) 오전 9:45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나성금란교회**  
기쁨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 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310) 719-2244 / dkpc.org

**서보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중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강산권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김경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이동진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EM예배 오전 11:00 오전 5:40(토)

**성화장로교회**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만나며, 함께 걷는 믿음-사랑-성령 공동체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310) 515-1191 www.sunghwachurch.org

**박성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EM예배 오전 10:45 금요성령대위회 금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처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이상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 90247  
T. (714) 296-6783 www.sbhshvision.org

**이종웅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530-4040 / F.(310)530-8400 / cornerstonetm.com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 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주일 3부 오전 11:00  
EM예배 1부 오전 9:30/2부 오전 11:0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트럼프도 드린 온라인 예배, 1300만명 조회에 11,207명 결신**



그렉 로리 목사. ©Courtesy of Harvest

**美 하비스트교회 그렉 로리 목사 “전도의 문 활짝 열렸다”**

미국 캘리포니아 하비스트펠로우십교회(Harvest Christian Fellowship) 그렉 로리(Greg Laurie) 목사가 인도한 종려주일 예배 영상이 1,300만 조회수를 기록한 가운데 11,207명의 결신자가 나왔다.

6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와 하와이에 캠퍼스를 두고 있는 하비스트교회는 종려주일일 하루 지난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고 트위터에 남긴 글을 보고, 새롭게 예배를 찾아 온 이들이 많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많은 신앙인들에게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의 시작이면서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멋진 날이다. 난 동부시각으로 내일 오전 11시에 리버사이드 하비스트교회의 그렉 로리 목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렉 로리 목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트럼프 대통령이 온라인으로 우리 교회 예배를 드렸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놀랐다”면서 “비록 온라인이지만, 대통령이 미국인으로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 감사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부활절 예배에 직접 참석하고 싶어했으나, 불행하게도 이뤄지지 못했다”고 했다.

이날 마태복음을 본문으로 한 설교에서 로리 목사는 “예수님께서 2~3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는 나도 함께한다’고 하셨다. 우리는 가정을 비롯하여 이 방송을 지켜보는 어디에서든지 교회를 가질 수 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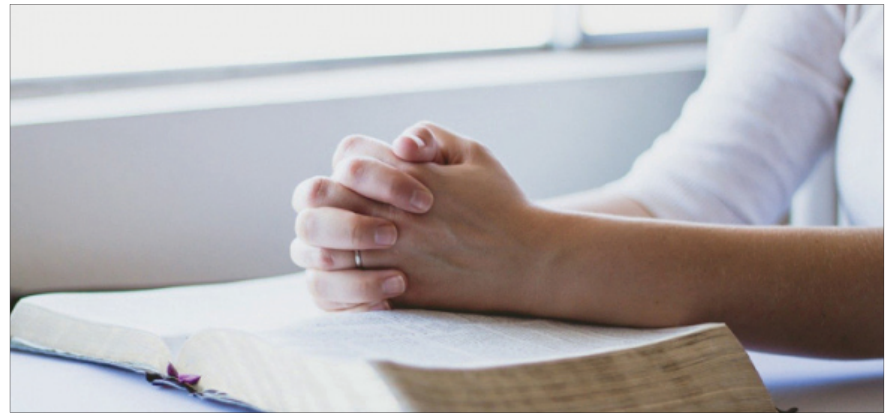
그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에는 역사적인 ‘기회’가 놓여 있다. 지금 우리 앞에는 내 일생에서 전혀 보지 못한 전도의 문이 열려 있다”면서 “지난 45년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지금과 같이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 있는 기회는 좀처럼 본 적이 없다.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술도 갖고 있다. 물론 위성방송 TV와 라디오가 있었지만, 오늘날 모두가 휴대폰을 사용한다. 여러분은 휴대폰, 태블릿, TV 화면을 통해 우리가 송출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전했다.

또 교인들에게 사회적 거리 두기에 잘 동참해 달라고 호소하고, 생필품 등을 어려운 이웃과 나누며 이타적인 정신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이들을 용서하라고 권면하기도 했다.

예배가 진행되는 도중 제이슨 파웰(Jason Powell) 부목사는 “교회에 온라인으로 전해진 반응은 믿을 수가 없을 정도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러한 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우리는 주님께 오병이어를 드렸지만, 주님은 이를 축사하셔서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이들을 먹이셨다. 지난 3주 동안, 약 100만 명이 넘는 이들이 우리의 온라인 방송인 ‘Harvest at Home’을 찾았다”고 말했다.

강혜진 기자

**미국인 55%가 코로나 종식 위해 기도, 90% “일상에 변화” 응답**



미국 성인들의 55%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pixabay

**퓨리서치, 1만1천537명 대상 조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해 많은 교회들이 폐쇄했지만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전염병 종식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1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지난 달 19일부터 24일까지 1만1천 537명의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퓨리서치 센터가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의 55%가 “코로나19 확산 종식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매일 기도했다고 말한 응답자 중 약 86%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 기도했다고 대답했다.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응답자 중 73%는 전염병 확산으로 기도했다고 말했다.

거의 또는 전혀 기도하지 않는 응답자 중 15%도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대답했으며 어떠한 종교에도 속하지 않았다고 밝힌 응답자의 24%가 코로나 종식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조사에 따르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교회에 출석했다는 응답자의 59%가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기간 중 현장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퓨리서치는 “응답자들이 더 이상 물리적 공간에 모이지는 않지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며 “약 40%의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응답자들은 현장예배를 온라인예배로 대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0%가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이후 일상생활에 변화가 있었다”고 대답했으며, 44%는 “일상이 변화되는 중대한 기로에 있다”고 대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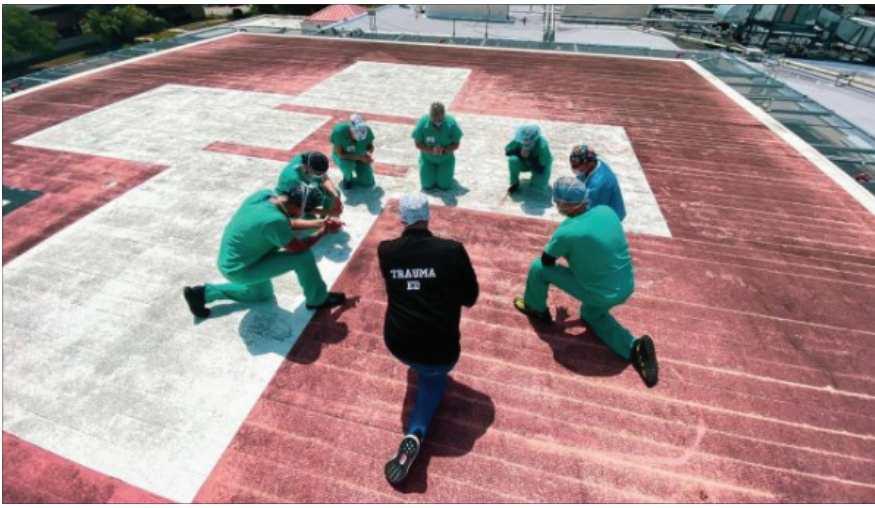
대도시 시민들은 파티에 참석하거나 외식을 하거나 투표소로 가는 일조차 불편하게 느끼고 있었다. 약 42%의 응답자는 “식품점 점에 가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진다”고 대답했다.

18세에서 64세 사이의 성인 중 약 40%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재택근무를 한다고 밝혔다. 학사 졸업 학력 이상 또는 고소득 근로자의 대다수도 재택근무를 중이라고 응답했으며 12세 미만의 자녀를 둔 성인의 대다수는 재택근무가 육아를 보다 잘 책임지고 관리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대답했다고 CP는 전했다.

강혜진 기자



# “하나님 보호하소서” 美 병원 직원들, 코로나환자 돌보기 전 합심기도



코로나환자를 돌보기 전 옥상에서 모여 기도하고 있는 의료진들. © 마이애미 잭슨 사우스 메디컬 센터

미국 마이애미에 위치한 잭슨 사우스 메디컬 센터의 간호사와 병원 직원들이 코로나19 환자들을 돌보기 전 건물 옥상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가졌다.

미국 폭스 뉴스는 1일 SNS에 잭슨 사우스 메디컬 센터의 간호사들과 병원 직원들이 함께 기도하는 사진을 올리고 “이들은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보호하시고, 우리와 가족들의 안전을 돌봐 주소서’ 라고 기도했다”고 전했다.

미국에서 내 코로나 확진자가 2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의료진에게 필요한 보

호 장구가 심각하게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코로나19 환자가 빠르게 늘면서 연방정부가 비상용으로 비축해 놓은 호흡기 마스크와 가운, 장갑 등 의료 보호장구의 재고가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며 국토안보부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한편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학(UCLA) 병원 간호사들은 마스크 등 의료 장비의 부족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촛불집회를 열기도 했다.

강해진 기자

# 코로나 바이러스의 도전에도 교회는 성장 중



코로나 바이러스의 도전에도 많은 목회자들은 교회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 pixabay

## 바나리서치 그룹 설문에 목회자들, “기술혁신과 성도 돌봄 및 기도 늘어” 응답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적 거리유지 등으로 활동이 제한되면서 목회적으로 큰 도전을 받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교회는 여전히 성장 중이라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2일 보도했다.

신문은 새로운 설문조사 단체인 바나리서치 그룹의 목회자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 “코로나로 목회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으면서도 많은 목회자들이 새로운 방식의 기술에 익숙해 지는 등 교회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사태 이후 교회에 어떤 부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절반가량인 48%의 목회자가 ‘기술 혁신’을 꼽았다. 또 22%의 목회자는 “더 주도적이고 깊이 성도들을 돌볼 수 있게 됐다”고 답했고, 11%는 “기도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성도들이 영적으로 더욱 개방됐다’는 응답이 5%, ‘새롭고 예상치 못한 지도자들의 발돋움’이 3%, ‘교회가 공동체를 돕기 위해 더욱 강화됐다’ 3% 등이었다. 많은 곳들이 이미 인터넷 예배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출석률 및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고 답한 목회자들이 2%였으며 ‘소규모 그룹 참석자가 증가했다’는 응답도 2%였다.

코로나바이러스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의 대부분은 이 사태를 잘 견뎌낼 것이라고 봤다고 신문은 전했다. ‘전반적으로, 오늘 어떤가?’라는 질문에 84%의 목회자가 ‘좋다’고 응답했고, 15%가 ‘괜찮다’였으며, 단지 1%만이 ‘나쁘다’고 답했다.

코로나사태가 늘 급변하고 불확실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응답한 목회자의 94%는 그들의 교회가 코로나사태의 위기에 처 살아남을 것이라고 ‘매우 확신’하거나 ‘확신한다’고 대답했다.

강연숙 기자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관련, 응답한 목회자들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전반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봤다. 설문조사 결과 목회자의 10%는 ‘아주 훌륭하다’고 대답했고, 62%는 ‘좋다’고 평가했다.

또 목회자들의 절반 가량인 46%는 이 기간을 통해 성도들의 개인적 믿음이 더욱 성장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4분의 1만 이 성도들 신앙이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교인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18%는 ‘많이 영향 받는다’, 53%는 ‘보통’, 23%는 ‘약간 영향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코로나사태 동안 목회자들이 최우선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일에 대해 응답자 중 61%가 “위기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교회가 집중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는 ‘예배 스트리밍 및 온라인 헌금 등의 기술 솔루션 구축’이라는 응답이 25%였고, ‘식량 및 물자 분배를 돕고 있다’는 응답도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34%는 ‘노인 등 고립 상황에서 위험할 수 있는 이들을 돕고 있다’고 답했으며, 주변 어려운 이들을 물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응답은 5%였다.

오클라호마의 멀티 사이트 교회인 라이프교회 담임 바비 그루엔왈드(Bobby Gruenewald) 목사는 바나리서치 그룹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바비 목사는 “물리적으로는 아니더라도 확실히 디지털 방식으로 교회 문을 열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시기 동안 중요한 감정들을 나누고 관계적인 면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교회를 위한 실험의 시간이며 지금 세계적으로 교회에 혁신의 물결이 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KM 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5:3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레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www.torrancegcc.org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 O.C., 엘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org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 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정예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생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셀기족 예배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생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E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 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저녁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

**이 일 담임목사**

**남가주 순복음교회**  
복음 행위로 생명을 살리는 생애공헌체 사모 사모사역에 모인 자는 복을 받는다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 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운 믿어 함께 달려가는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9:0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수요성령집회 오후 8:00 중·고등부, 대학원생부  
한국학교 주일 오후 1:30

**왕상윤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주일 오전 6:00

**최순길 담임목사**

**LA 임마누엘교회**  
562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0  
T. (714) 743-0141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 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9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 1부 예배 : 오전 9 : 45 목요저녁예배 : 오후 7시  
주일 2부 예배 : 오전 11:00 새벽기도 : 오전 6:00(화-금)  
유년부예배 : 주일 오전 11:00 셀모임 : 매달 둘째 및 넷째 금요일  
중고등부예배 : 주일 오전 11:00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 늘사랑교회**  
Everlove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46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 (714) 525-0191 / www.ebsoca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김일권 담임목사**

**다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988-3321, (562) 896-1665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Youth / College 주일 오전 11:00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제일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어린이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훈련 오전 9:30(금)  
중보기도 오전 9:00(토)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 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 821-9900, 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 영어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말기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 예배 : 오전 9:30 청년부 : 오후 2:00  
2부 예배 : 오전 11:30 Hispanic Service : 오전 9:30  
English Ministry : 오전 11:30 금요 기도회 : 오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 오전 11:30 새벽 기도회 : 오전 5:30 (월-금)

**정기정 담임목사**

**샘몰교회**  
풍성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공동체  
11909 Courser Ave, La Mirada, CA 9063  
T. (714) 749-7770 www.saemool.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9:15, 11:30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KM대학원생부 오후 2:00

**박신용 담임목사**

**엘바인은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청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FAME예배 오전 11:30(청년 영어)

**이서 담임목사**

**엘바인 침례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매월 마지막 금요일)  
3부찬양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2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영어) 오전 10:00  
3부예배 오후 11:45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신원규 담임목사**

**좋은마을교회**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T. (714) 646-9259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 598-9130 breadhoon@hanmail.net

문/사/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2020년 봄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참,(진리의길) 앎,(학문의 길) 삶,(십자가의 길)

**개강일자: 4월 2일**

\*COVID-19으로인하여 개강일자가 연기되었습니다

본교 지원시 특전

- 1)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대학(BA)과정이나 교역학 석사(M.Div) 과정 지원자는 첫 등록학기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 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신학대학교

신학과(B.A) | 126학점

신학대학원

- M.Div 교역학 석사과정 | 96학점
- D.Min 목회학 박사과정 (NYTS)

**입학상담 : 213-272-6031**



##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213-272-6031

2020 LA, California  
**목회자 및 사모  
복음과 성령 컨퍼런스**  
Holy Spirit Conference  
2020년 3월 9일-10일(월,화)  
9일(월)저녁 7pm  
10일(화)오전 10am-4pm  
장소: 나눔과섬김교회  
276 S. Rampart Bl. Los Angeles

강력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의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이 폭포수처럼 흐르는  
성령의 기름부으심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회장: 이명희목사)

회장: 이명희목사  
수석부회장: 박정희목사  
부회장: 조은혜목사, 윤에스터목사  
송정순목사, 김사라목사, 노정애목사  
서사라목사, 박예경목사, 조미나목사  
총무: 조현숙목사

강사: 이상목 목사  
목회자성령컨퍼런스 주강사  
(한국, 미국, 캐나다, 남아, 동남아 등)  
목회자능력기도회 주강사  
목회자 및 사모 영과영성, 주강사  
펜실베이니아 Erie 장로교회 담임  
KAPC소속 (남부노회 부노회장)

주관: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후원: 개혁장로회한미연합총회  
문의 562)896-3212 (에스더유전도사)  
562)201-4184 (이명희목사)  
714)222-1794 (박정희목사)



## PRINCETON BIBLE UNIVERSITY IN AMERICA 프린스턴바이블유니버시티

### CNA | RN 시험준비 영어반 학생모집

CNA, RN, 채혈사 임시를 위한 영어 강의가 개설됩니다. 미국 공립학교에서 36년간 영어교사를 하신 헨리김 선생님이 지도합니다.



헨리김 선생

CNA, RN 준비반  
월, 화, 수 PM 2:00-4:00  
채혈사 준비반  
월, 화, 수 PM 4:30-6:30

상담문의전화 818-624-9106  
213-272-6031

프린스턴바이블유니버시티  
2867 1/2 7th St. Los Angeles, CA 90057

# 프린스턴 바이블 유니버시티 2020년 봄학기 입학생 및 편입생 모집

프린스턴 바이블 유니버시티(PRINCETON BIBLE UNIVERSITY) 에서 입학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받아 그의 사역자로 헌신하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학사과정**  
(B.Th/B.A)

126학점

**석사과정**  
(M.Div/M.A)

96학점

**박사과정**  
(D.Min/Ph.D)

48학점

**3월16일 개강**

등록상담전화

310-678-6836  
213-249-6924



## PRINCETON BIBLE UNIVERSITY IN AMERICA 프린스턴바이블유니버시티

2867 1/2 7th St. Los Angeles, CA 90057 | TEL: 310-678-6836

## 하나님이 예배문을 단으신 거라면...

어느 날 밤 한 남자가 테레사수녀에게 아주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옆집에 아이들이 8명이나 있는데 며칠 동안 굶어서 너무나 고통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쌀을 가지고 가서 보니까 얼굴표정에 고통만 보입니다. 그래서 쌀을 건네줬더니 그 어머니가 받아마자 쌀을 반으로 나누어서 그것을 가지고 밖에 나갔습니다. 어디 갔다 왔느냐 물으니 옆집에도 우리와 똑같이 배고픈 사람이 있어서 그것을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후에 이 사건을 놓고 테레사수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녀가 이웃집에 배고파서 고통 받고 있는 자가 있어서 그것을 나눴다는 것에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은 실제로 더 많이 나눌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놀랐던 것은 그 녀가 이웃집에 배가 고프고 고통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 극한 고통이 있으면 남의 고통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생각했다는 그 마음 그 사실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온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두가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학교를 갈 수 없어 집안에서 함께 지내는 불편함(?)도 생기고, 직장과 사업의 문들을 대부분 닫았기에 한 순간에 일을 잃은 분들도 많습니다. 교회도 자유롭게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인터넷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 영적으로도 당황스런 시간입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과 영혼의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총체적 고난이 생기면 너나 할 것 없이 내가 제일 힘들고,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의 힘들어 제일 크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그러다보니 사람들의 관심은 당장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부기관의 무상지원과 코로나 사태로 인한 복지 혜택과 같은 일에 쏠리게 됩니다. 미국과 같은 기독교 국가가 성경적 바탕 위에서 만들어 놓은 좋은 복지 시스템을 잘 활용하는 것은 고난을 이기는데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불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모습을 증거 할 책임도 있음을 기억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나보다 힘든 이웃을 향해 진실한 사랑과 희생을 증거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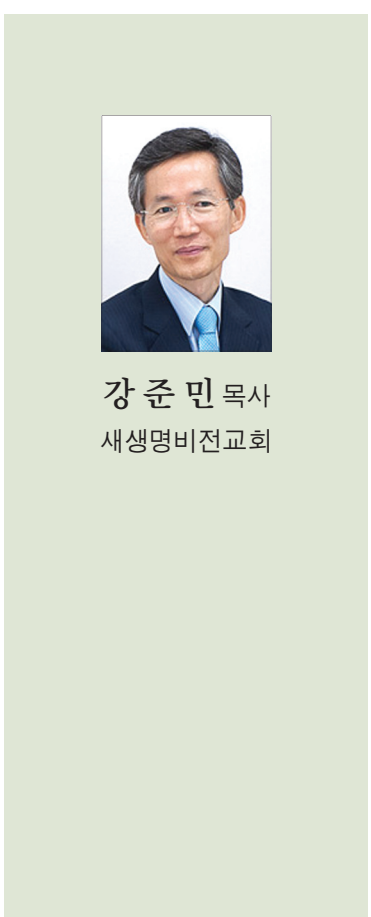
물론 저희 교회는 은밀하게 개인적인 구제들을 잘 실천하는 분들이 참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지난 목요일부터 기도를 할 때면 하나님께서 지금 특별한 시기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구제에 대한 감동을 주십니다. 그런데 아직 아무에게도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있던 금요일 오후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2만 불의 구제비를 준비해오셨습니다. 신봉 등의 문제로 전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어려운 분들을 도우라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즉각적인 순종을 실천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지금은 교회를 비롯하여 모두가 힘든 때이지만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예배에서 믿음으로 드러지는 헌금은 100% 주님의 사랑이 긴급히 필요한 이웃을 돕는 구제금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구제에 자기이름을 드러내는 세상과 달리 교회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기에 오른 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행해야 합니다.

액수에 상관없이 어려운 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는 기도를 통해서 원수마귀가 틈타지 않고 모든 구제의 동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겸손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공의롭고 신속하게 잘 이루어지는 또 한 번의 구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누려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 고난 중에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

고난 주간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고난 받으신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주간입니다. 고난은 신비입니다. 고난 속에는 고통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면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고난을 좋아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도 할 수 있으면 고난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겐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내 아버지에 만일 할 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마 26:39)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 26:39)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강 준 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을 씻는 샘이 열렸습니다. 스가라 선지자는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라"(슥 13:1)고 예언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죄와 더러움을 씻을 수 없습니다. 마치 인간의 죄를 더러운 그릇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더러운 그릇처럼 죄로 더러워졌습니다. 더러운 것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더러운 그릇에 담긴 음식은 썩습니다. 사람을 병들게 만듭니다.

더러운 그릇이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더러운 그릇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세제와 물이 필요합니다. 또한 누군가가 그 더러운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 주어야 합니다. 더러운 그릇과 같은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뿐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보혈의 샘과 생수의 샘이 열린 곳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 중의 하나는 손을 자주 씻는 것입니다. 그냥 물만 가지고 씻어서는 안 됩니다. 비누를 사용해서 흐르는 물에

20초 이상 씻어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몸을 공격하지만 우리 영혼을 공격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죄의 바이러스는 우리 죄악 된 몸과 마음과 영혼을 모두 공격할 수 있습니다. 죄의 바이러스를 씻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분의 보혈로 우리 죄를 정결케 해 주셔야 합니다.

더러운 죄를 정결케 하는 길은 예수님의 보혈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은총의 도구로 피를 정하셨습니다(레 17:11).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우리 죄를 구속하셨습니다. 구속(救贖)이란 "뺏는다"라는 뜻입니다. 짐승의 피는 우리 죄를 덮어 재앙을 멈추게 했습니다. 하지만 죄를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죄를 덮어 용서하고, 또한 죄를 없앨 수 있는 피는 오직 예수님의 피 밖에 없습니다(요일 1:7). 예수님의 보혈이 왜 그렇게 능력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보다 더 귀한 피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감당할 수 없는 죄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모든 죄를 사하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절정은 고난 중에 베풀어 주신 사랑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 나아가시는 중에도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요 13:1). 고난 중에도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평안을 선물해 주셨습니다(요 14:27, 16:33).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요 14:16, 16:7). 고난 중에도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해 주셨습니다(요 17장).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아름다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놀라운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 담임목사 청빙

달라스 베다니 장로 교회는 (1986년 설립) 복음연약 장로 교단 ECO (A Covenant Order of Evangelical Presbyterians) 소속 교회로 복음전파와 다음세대로의 믿음 전승을 사명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번 담임목사님의 은퇴(25년 시무)로 생명의 말씀과 사랑의 수고로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가실 새로운 담임목사님을 청빙 합니다.

### 청빙 자격 (자격 조건)

1. 장로교 및 개혁 신학교 M. Div 졸업자.
2. ECO 교단 소속 혹은 가입에 문제 없는 분.
3. 이중 언어 소통이 가능한 분. (한국어, 영어)
4. 미국 체류에 결격 사유가 없는분
5. 이민 목회 경력 5년 이상

### 제출 서류 (구비 서류)

1. 교회 소정 양식에 따른 이력서, 목회 계획서 (bethanydallas.org/담임목사청빙공고)
2. 학위증 사본 (대학교, 신학 대학원 M. Div. 최종 학력)
3. 목사 안수증 사본
4. 최근 설교 2편 (mp3 or youtube link)
5. 추천서 2부 이상 (추천인이 청빙위원회에 직접 email 혹은 우편 발송)
6. 자기 소개서, 사모님 자기 소개서

### 제출 기간

2020년 4월 30일 까지이며 제출된 서류는 비밀이 보장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서류 심사후 1차 대상자에게만 연락드립니다.

### 제출처

담임 목사 청빙 위원회 (bethanypnc2020@gmail.com)  
\*문의 사항은 e-mail로만 문의해 주세요.

### 달라스 베다니 장로교회 청빙 위원회

4020 Marchant Blvd, Carrollton TX 75010 Tel.972-395-9200  
bethanydallas.org bethanypnc2020@gmail.com

The Cornerstone Community Church in Marina, CA, is looking for a Youth/EM pastor with a pioneering spirit to build a multi-ethnic community. Though the congregation is small in number, it is made up of dedicated adults and adolescents who are passionate about God and the church. CCC was planted with the full support of the Korean First Presbyterian Church (mkfpc.org) to provide Christian witness and service in the area.

### 1. RESPONSIBILITIES INCLUDE:

1. Lead Sunday worship, including preaching, and provide weekly Bible studies
2. Oversee administration of the Youth Ministry and Sunday School
3. Plan, execute, and evaluate ministry events/programs throughout the year
4. Coordinate EM ministry with Korean ministry's vision and goals

### 2. QUALIFICATIONS:

1. Master of Divinity or equivalent from an accredited seminary
2. Experience in Youth/English Ministry
3. Possess a strong calling to shepherd a young generation
4. Fluent in both spoken and written English (Korean is preferred)

### 3. APPLICATION REQUIREMENTS:

1. Resume including photo of self + family (if married)
2. Statement of philosophy and theology of ministry (one page)
3. Personal testimony: faith journey and the call into ministry (two pages)
4. Two sermons
5. Two ministry references with contact information

### 4. Salary & Benefits:

1. Salary range is \$45,000-55,000, depending on experience and family circumstances
2. Benefits are included with health insurance
3. Two weeks of paid time off per year (one week during first year), and one conference for professional development per year

5. Interested applicants should email all application requirements to Rev. K. Rhee (woong101@gmail.com)

## 솔즈베리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

미국 동부 메릴랜드주 솔즈베리 (Salisbury)시에 위치한 솔즈베리 한인장로교회(PCUSA)는 28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섬기실 담임 목사님을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 자 격

- 현재 PCUSA 교단 소속 또는 가입이 가능하신 분
- 정규 신학교 이상 졸업하신 분
- 미국 체류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 이중언어(한/영)에 불편이 없으신 분
- 목회경력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 (담임목사, 부목사 경력 포함)

### 제출서류

- 한글 이력서 1부 (사진 포함)
- PCUSA MIF양식 (pcusa.org)
- 본인 및 가족 소개서 (가족사진 포함)
- 추천서 2부 (목사 1명, 장로 1명)
- 최근 6개월 이내 설교 동영상 2편 (CD/DVD/USB 또는 동영상 링크 주소)
- 최근 3주간 주보
- 목회 비전과 신앙고백서
- 신학교 졸업 증명서
- 목사 안수 증명서

### 제출처

- 제출 마감일: 2020년 4월 18일 (토)
- 보내실 곳: 솔즈베리한인장로교회 청빙위원장  
Attn: Eld. Nakin Sung (성낙인 장로)  
2420 N. Salisbury Blvd., #2, Salisbury, MD 21801

### 기 타

- 서류는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해 드리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 1차 선정 대상자에게는 개별 통지하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청빙위원장 성낙인 장로  
Email: salisbury5183@gmail.com



솔즈베리한인장로교회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Salisbury

231 North Division Street, Salisbury, MD 21801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D Printing**

CD전문 주님미디어입니다.  
 교회성경,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

전도용 볼티슈  
 영타슈  
 주일제전  
 2020년  
 공미보고  
 마그네틱 영봉투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Han's piano tuning**  
 피아노조율

James Han  
 Sale Used Piano  
 Professional Tuning  
 Repair & Moving  
 godfist91@gmail.com  
 Tel : 562-822-6778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문의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치과의사 이동희  
 이동희 원장

**바이러스를 죽이는 마스크가 왔다!**  
**VK마스크 시판**

U.S. Patent Serial No.: 88819662

특수 발효소금의 초강력 필터 개발!  
 마스크는 필터링이 생명!

**VK 소금필터의 특징**

바하만 청정지역에서 염도가 높은 바닷물을 끌어들이어 진흙뻘에 1년간 숙성시킨후  
 4년간 햇빛과 바람으로 만든 자연산 천연염으로 특수코팅!  
 중금속 0%! 간수0%! 미세플라스틱0%! 85가지 미네랄 천연염!  
 특수소금필터는 호흡기를 통해 마스크에 습도가 생기면 소금분자들이  
 분자 분해를 일으켜 호흡기 방향으로 이동하여 보호해준다.  
 일반 마스크는 습도가 발생하면 박테리아균이 발생되어 장시간 사용할 수 없지만  
 VK 마스크의 천연염 특수 패드는 멸균과 동시에 입안에 냄새도 제거해 준다.  
 VKM 소금필터는 특수 코팅되어 3주 이상 사용할 수 있다. (1회 찬물에 1-2분 세척가능)  
 마스크 필터에는 특수소금이 코팅되어있어 바이러스가 마스크에 접근하면  
 소금의 결정이 바이러스를 파괴한다.  
 바이러스가 사멸된 마스크는 균이살지 못하므로 재활용도 가능하다

1개 \$20  
 1인당 10개 한정  
 3주 이상 사용가능

특수 천연염 필터 마스크로 자유롭게 안전하게!  
 판 매 처

**Space Eum Cafe** 213.386.3896  
 3020 Wilshire Blvd. #100 213.605.2772  
 Los Angeles, CA 90010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세요

세계각국 및 지역 대리점 이메일로 접수: info@vkmask.com

VK 마스크 특수필터는 코שמ미네랄 천연염 소금연구소 제공.  
 KoshreMineralSeaSalt.com

100% HANDMADE  
 MADE IN USA

VKMask.com  
 Virus Killer Mask  
 VKMask, Inc.

#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주는 교훈과 신학적 메시지



이상명 박사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

## 코로나-19, 인류가 장차 경험할 판데믹의 서막

중국 우한에서 발원한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사태로 전 세계가 미증유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 이런 초유의 판데믹이 근자에만 발생한 것은 아니다. 100여년 전, 1918년에 시작한 소위 ‘스페인독감’이라는 최악의 판데믹으로 약 5천만 명에서 1억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전란에 휩싸인 국가들의 언론사들이 보도검열로 범유행전염병을 기사화하지 않고 있을 때, 전쟁에 비쳐 서 있던 스페인 언론이 대서특필함으로써 이 재앙은 ‘스페인독감’이라 명명된다. 세계 1차 대전의 막이 서서히 내려지고 있는 그때 1918년 봄부터 1919년 겨울 사이 세 차례 창궐한 전염병은 영국, 미국, 중국, 일본 등지를 강타했고 심지어 한반도 조선까지 전파되어 14만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다. 조선 전체 인구의 0.8%, 즉 100명 중 1명 꼴로 죽은 셈이다.

이 스페인 독감은 14세기 유럽 인구 30%(약 2천 5백만 명)에 달하는 목숨을 앗아간 흑사병과 함께 인류 역사에 기록된 최악의 범유행전염병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20세기에 일어난 모든 전쟁에서 전사한 군인들을 합한 총계보다 이 스페인독감으로 사망한 사람들이 많다. 직경이 100나노미터에 미치지 못하고, 11개의 하찮은 유전자로 이루어진 단순한 바이러스에 의해 수많은 생명들이 스러진다. 확산 본능을 지닌 바이러스의 세계는 우리 인간에게 여전히 신세계이며, 지구촌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미개척지와 같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판데믹은 서막에 불과하다.

## 우리를 둘러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바이러스는 병원균의 세계에서 가장 작은 생명체다. 바이러스는 지

구에서 어떤 유기체보다도 빠른 속도로 진화하지만, 다른 생명체에 비해 바이러스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상당히 부족하다. 영어 단어 바이러스(virus)는 라틴어 ‘비루스’(virus)에서 유래한 단어로 ‘독성(毒性) 분비물’이라는 뜻이다. 바이러스를 살아있는 액성 전염물질로 오해한 연유다. 바이러스는 스스로 성장하거나 생식할 수 없기에 자신들이 감염시킨 세포에 기생한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 숙주세포를 감염시킨다. 이런 점에서 우리 인간은 바이러스가 기생하기에 너무나 좋은 블루오션이다.

바이러스는 두 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유전물질인 RNA(리보핵산)나 DNA(디옥시리보핵산)이고, 다른 하나는 유전자를 보호하는 단백질막이다. 이 단백질막은 숙주세포의 벽에 달린 수용체를 열 수 있는 ‘열쇠’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 수용체는 일종의 ‘자물쇠’인 셈이다. 이 바이러스의 열쇠가 자신에게 꼭 맞는 세포 자물쇠를 찾아내면 그 세포 조직의 문이 열린다. 그 후, 바이러스는 숙주세포에 들어가 세포 조직을 강탈해서 성장하고 번식한다.

현재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바이러스도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인체에 침투한다. 자신의 표면에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로 숙주세포에 달라붙은 후, 세포가 가진 단백질가위를 활용해 자신의 스파이크 단백질 일부를 잘라낸다. 이로써 바이러스막과 인간 숙주의 세포막이 융합된다. 이 때 바이러스막 속에 보관하고 있던 RNA 게놈이 숙주세포 안으로 침투하여 본격적 증식활동을 벌인다. 이때부터 침입자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자원을 강탈당한 주인(세포)은 서서히 죽음을 맞이한다. 1960년대에 처음 발견된 코로나바이러스의 명칭은 독특한 형태의 스파이크 단백질 때문에 라틴어로 ‘왕관’을 뜻하는 ‘코로나’(Corona)에서 유래하게 된 것이다. 2003년 중국에서 발생해 세계로 퍼져 7백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사스, 2015년 우리나라를 강타한 메르스가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사스, 메르스와 다른 세 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다.

우리 인간은 자신의 감각으로 느끼고 볼 수 있는 세계에 익숙하다. 어떤 병원균이라도 볼 수 있는 그런 마법의 안경이 있다면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는 이전과는 크게 다르게 보인다. 무척 역동적이고 완전히 새

로운 세계가 곧바로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 우리가 거하는 공간 곳곳에는 보이지 않던 생명체들로 우글거린다. 책, 벽, 커피잔, 카펫 바닥, 온갖 손잡이에 박테리아는 물론 엄청난 작은 병원균들이 득시글거린다. 우리가 매일 밟고 살아가는 흙 아래 세계는 어떤가. 그곳에는 온갖 미생물들이 하나의 작은 우주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다. 2005년 <사이언스>에 발표된 바로는 불모의 땅 이든, 기름진 땅이든, 흙 1그램에는 100만 종의 세균이 산다고 한다. 흙 1,000m2에 사는 세균의 무게를 모두 합하면 300킬로그램 정도 될 것이다. 한 큰 술도 안 되는 흙에 세균이 100만 종이나 살고 있다는 사실이 그저 경이롭기만 하다. 큰 생명체만을 인지할 수 있는 우리 감각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생명체의 풍요로움을 잊고 살아간다.

## 코로나바이러스, 탐욕 바이러스에 걸린 인간이 자초한 재앙

모든 생명체가 그러하듯, 바이러스도 끊임없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선택을 강요받는다. 즉 확산되어 숙주의 면역체계에 생포되는 위협을 무릅쓸 것인가, 아니면 동면 상태로 잠복하여 자신의 안전을 지키면서 후손을 포기하느냐 하는 두 가지 갈래길에 놓인다. 숙주의 죽음은 바이러스에게도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주변의 환경적 변수들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다른 두 종류의 바이러스가 동일한 숙주에 기생할 경우, 때때로 그들은 동일한 세포를 감염시켜 유전정보를 서로 교환함으로써 제삼의 ‘모자이크 딸바이러스’(mosaic daughter viruses)를 탄생시킬 수 있다. 코로나-19 또한 이런 돌연변이다. 우리를 둘러싼 생태계는 이러한 생명현상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끊임없이 일어나는 아주 역동적 터전이다.

이번 판데믹은 개발과 발전이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인간이 자초한 재앙이다. 인간의 자연 파괴로 인해 야생동물의 서식지는 갈수록 줄어들고, 인간과 야생동물의 접촉 빈도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동물에서 인간으로 전이될 수 있는 바이러스는 갈수록 늘어날 테고 보다 많은 변종 바이러스가 생길 확률은 고조된다. 사스나 메르스 같은 바이러스 감염병은 사향고양이나 낙타와 같은 중간 숙주를 거쳐 인간에게 전파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코로나바이러스는 천산갑을 중간 숙주로 하여 인체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우리는 좋은

싫든 병원균들마저 세계화된 세상에 살고 있을 정도로 세계는 더욱 촘촘히 연결되어 있다.

현시대의 교통 혁명은 바이러스 폭주로 이어진다. 현재 지상에는 5만여 곳의 공항, 3,200만 킬로미터가 넘는 도로, 110만 킬로미터 이상의 철로, 해상에는 수십만 척의 크고 작은 선박들이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과 엄청난 양의 물자를 실어나른다. 이전에는 한 지역에서 발생하여 기생하거나 사라지던 바이러스들이 교통 혁명으로 이동하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모두가 연결되는 하나의 세계가 되었지만 세계는 온갖 병원균들이 뒤섞이는 거대한 용광로가 된 지 오래다.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이 자행한 자연 착취로 인해 우리가 사는 세상을 판데믹으로 몰아가고 있다. 삶의 터전인 지구가 우리 인간으로 인해 그동안 얼마나 피폐해졌는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바이러스의 행태다. 코로나-19는 우리 생의 터전, 자연을 돌아보라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가 아니겠는가.

## 하나님 형상 회복만이 진정한 백신

칼과 / 흙이 싸우면 / 어느 쪽이 이길까 / 흙을 / 찌른 칼은 / 어느새 / 흙에 붙들려 / 녹슬어버렸다. 생태시인 김준태의 <칼과 흙>이란 시다. 이 시에서 대조를 이루고 있는 ‘칼’과 ‘흙’이라는 시어는 많은 것을 응축하고 있는 상징어다. ‘칼’은 인간 문명을 뜻하는 어휘고, ‘흙’은 생명력의 창조적 기반인 자연을 함축하는 언어다. 탐욕과 횡포라는 문명의 독기를 품은 서슬 퍼런 칼이 흙을 이길 것 같지만, 포용력과 생명력으로 총일한 투박한 흙에 붙들린 채 칼은 결국 시뻘겋게 녹슬어버린다. 인간의 탐욕이 휘두르는 칼이라는 문명 앞에 흙은 큰 위해를 경험하지만, 그렇다고 문명이라는 칼이 흙으로 상징된 자연을 이길 수는 없는 법이다. 흙(자연)의 힘에 비하면 칼(문명)의 힘은 너무나 보잘 것 없기 때문이다.

현대 산업사회의 목표는 경제적인 부, 풍요 및 성장이다. 생태 위기를 가져온 가장 근본적 원인은 과도한 소유와 향락에 삶의 궁극적 의미를 두는 현대인들의 소비주의 가치관 때문이다. 그 결과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소외되었고 일상생활은 기계화되어 오히려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상실케 한다. 시장경제가 부추기는 소비주의는 인간다운 주체

성과 의식을 구속하고 생태계를 죽음으로 몰아간다.

생태계는 하나님과 모든 만물이 거처하는 ‘공동의 집’이기 때문에 생태영성은 하나님의 창조활동을 인식하고 생명의 길에 참여하는 실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인간이 자연의 주인이고 자연은 인간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그런 대상으로 인식하는 한, 자연에 대한 인간의 폭력과 파괴는 계속해서 되풀이될 것이다. 인간의 타락과 그 타락의 결과를 묘사하고 있는 창세기 3장과 그 이후 펼쳐지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불순종은 생태계에 저주를 가져오고 에덴동산으로부터 쫓겨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타락과 폭력과 파괴의 확산으로 이어지게 한다. 우리 자신이 창조하지 않은 것을 파괴할 권리를 우리는 갖고 있지 않다.

코로나바이러스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생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스러지고 국경이 닫히고 도시들은 폐쇄되고 시민들이 자백 격리되는 이 현실을 누군가는 그로테스크하다고 표현한다. 창조주 하나님을 잊은 채 신음하는 피조세계를 외면한 우리 현실이다. 우리의 내면세계는 어떤 모습일까. 그로테스크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바이러스가 침투한 폐와 같지 않겠는가. 인간의 오염과 파괴에 대해 자연은 인간이 한 만큼만 되갚아주는 일대일의 수치가 아닌 제곱수로 늘어난 재앙을 내리다 결국 언젠가 돌아킬 수 없는 치명적 타격을 인간에게 가할 것이다. 우리가 자연환경으로 더 깊이 들어가 그곳을 파괴할 때, 새로운 판데믹은 끊임없이 출현할 것이다. 인간이 뿌린 죄악의 씨앗들은 도처에 흩뿌려져 움트고 자라 가시덤불같이 뻗어나가 우리 삶의 터전인 생태계를 목정발처럼 만들고 있다. 이 땅에 질게 드리워진 탐욕이 독성 바이러스가 되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처참히 무너뜨리고 있다. 판데믹의 근원은 새로운 병원균이 아닌 탐욕 바이러스에 걸린 인간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터전이 더 이상 황폐화되지 않도록 우리가 사는 세상을 돌아보자.

우리 삶의 근간을 흐드는 아주 작은 생명체를 통해 하나님은 그 나라를 꿈꾸며 그 형상을 회복하라고 일갈하신다. 하나님 형상 회복만이 오고 오는 세대를 살릴 수 있는 진정한 백신이다.

# 담임목사 청빙

중서부 미시간주 칼라마주에 위치한 칼라마주 한인교회에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따라, 귀한 복음 전파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힘든 이민자의 삶을 살고있는 교인들이, 그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과 인내로 인도해주시 목자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1982년에 창립한 칼라마주 한인교회는 북미개척교단에 속해있으며, 약 60여명의 교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나누고 있는, 작지만 큰 교회입니다.

<http://kzoochurch.org/kzoochurch/index.php>  
<https://www.facebook.com/kzoochurch/>

우리가 살고있는 이 곳 칼라마주는, 미국 중서부 미시간주의 서남쪽에 위치한 중간 규모의 도시로서, 인근 유동인구까지 합치면 약 33만 명이 살고있는 곳입니다. 서쪽으로는 시카고가 약 두시간 거리에 있고, 동쪽으로는 디트로이트가 역시 비슷한 시간대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대도시로의 접근성도 꽤 괜찮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 도시(Calvin Seminary가 소재)로 알려진 그랜드 래피즈가 한 시간 거리에 있고, 깨끗하고 조용한 소도시 특성으로 인해, 자녀들의 교육적인 면에서 안전하고 적합한 환경인 뿐만 아니라, 사계절이 뚜렷한 날씨와 자연 친화적인 환경, 그리고 미시간호수가 지척에 있어 계절에 상관없이 바닷가의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 지원자격

1.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 분이로서, 개척교단에 소속되어 있거나, 가입이 가능하신 분을 모집합니다.
2. 목사안수를 받으셨고, 부목사나 전도사 경험이 있는 분을 모집합니다. 담임 목회 경험이 있으신 분을 선호하지만, 없으셔도 무방합니다.
3.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로도 기본적인 의사 소통이 가능하시면 좋겠습니다.
4. 현재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목회하시는 데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을 모집합니다.

## 제출서류

1. 이력서,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 목사 안수증명서사본
2. 목회 비전 및 계획을 포함한 자기 및 동반 가족 소개서
3. 추천서 2장 (목회자 추천서 1부 필수, 추천인의 연락처 기재요망)
4. 최근 설교 2편 (MP3 file 혹은 Youtube link)

## 제출 기한 및 제출처

1. 2020년 5월 31일까지 접수된 서류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생길 시 연장 가능합니다.
2. 추천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아래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koreanchurchkalamazoo@gmail.com](mailto:koreanchurchkalamazoo@gmail.com)
3. 추천서는 추천하시는 분이 개별적으로 위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고, 추천서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부탁드립니다.

## 기타

1. 4 bedroom 사택 (전기와 가스 포함)을 교회에서 제공해 드립니다.
2. 접수된 서류는 다시 돌려드리지 못함을 양해바라며, 접수된 지원서는 지원자 이메일을 통해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지원 관련 및 저희가 광고에 미처 실지 못한 사항에 대한 질문이나, 저희 교회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위의 이메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재효 목사의 은혜의 샘

# 나사로의 부활을 보이신 목적



서울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요한복음 11:17-44

## 1.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리신 예수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베다니에 환자가 있었는데 그 환자는 나사로였습니다. 그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여동생들이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심하게 앓자, 여동생들이 사람을 사서 갈릴리에서 전도하시는 예수님께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그 소식을 접하시고 곧장 베다니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사로의 죽음은 완전히 죽는 영원한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이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부활을 어떻게 이루어 내시는가를 보여 주시기 위해 죽는 것임을 밝혀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거나 들을 때에 그 사건에 앞서 그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나사로가 죽긴 죽는데 그것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고, 내가 가서 다시 살림으로 내가 부활의 주관자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어떻게 살려 내시는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그가 죽는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들을 갈릴리에 더 머무시며 전도하다가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즉, 예루살렘으로 가자하신 것입니다. 어떤 제자가 걱정이 되는 듯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 곳에서 전도하다가 돌아 맞아 죽을 뻔 했는데 또 그리로 가지렵니까?' 그러자 주님은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느니라. 내가 깨우러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잠들었느니라라는 말씀이 죽었느니라라는 말씀인지 알지 못하고, 진짜 육신이 잠들어 있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나사로가 죽을 때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비록 나사로가 죽고 썩어서 냄새가 풍기지만, 나는 말 한 마디로 썩어가는 시체라 할지라도 벌떡 일으켜서 살려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는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부활에 대해 예언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줄 수 있게 되어서 기뻐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다니로 가십니다.

## 2. 마리아와 마르다의 제한적인 믿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내려가셨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먼저 발견하고 맞이했습니다. 첫 마디가 원망입니다. '선생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죽은 다음에 오시

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라도 네가 믿으면 네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라는 부활에 대한 약속을 다짐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 부활할 줄을 저도 알고 믿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당장 죽은 나사로를 살려 주시겠다는데, 이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까. 믿지 못하는 마르다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은 참 답답했습니다.

여러분도 자기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살리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왜 안 믿어지십니까? 마리아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언니의 기별을 듣고 달려가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예수님의 존재와 사명과 능력에 대해 극히 제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한적인 믿음이란 예수님의 존재를 깊이 알지 못하고, 온전히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 분의 사명이 무엇을 위해 오셨으며 그 분의 능력은 얼마나 무한한지 알지 못하는 것이 제한적인 믿음입니다. 자신들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재어하며,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원망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까? 오라비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계셨으면 안 죽게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고 있었지만, 죽은 다음에는 예수님이 오신다 해도 죽은 오라비를 살릴 수 있는 예수님으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존재와 사명과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폐암말기 판정을 받았습시다. 사형언도를 받고 '이제 나는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했더니, 담당의사가 '아마 잘하면 2개월밖에 못 삽니다. 혹시 수술하시면 6개월 더 살 수 있을지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때 제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 토틀 주님 품에 안길 날이 이제 두 달 아니면 여섯 달 남았으니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만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 아내가 미국에 있었는데 귀국한 후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가면서 아내에게 내가 폐암 말기가 되어서 의사가 두 달 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의사가 그 이야기 하더라도 놀라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는 하늘나라 가는 것이 소원이고, 당신도 잘 믿다가 거기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되었고, 눈이 동그레지더니 내 손을 두 손으로 꼭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급하게 30초 정도 하더니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

서, 하나님이 절대로 목사님 데려 가실 일 없다고 했습니다. 평생을 교회와 선교를 위해 애써온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지금 데려가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병원에 들어가 절차를 밟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보통 폐암사진은 앓고 나면 흔적이 남습니다. 그런데 흔적도 없습니다. 이것이 어디로 전이 되어 갔을 것입니다. 빨리 찾아서 다시 치료를 시작해야 됩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헛수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애셨는데 당신이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고 해도 하나님이 없애신 것을 당신이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갑니다.'하고 나왔습니다.

한 달이 못되어서 몸이 아파, 삼성강남병원에 갔습니다. 거기서 종합검사를 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의사에게 '폐기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의사는 '잠깐만 계세요.' 하면서 자료를 찾더니 사진을 보여 주었습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폐가 상당히 깨끗하고 좋습니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도 몸이 아파서 많이 앓았고, 미국 가서도 많이 앓았지만 감기가 안 걸릴 정도로 폐가 건강합니다. 하나님이 고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쓰실 계획이 남아 있고, 믿어지는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고쳐가며 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한은 불신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믿고, 그 이상은 못 믿겠다는 것이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손해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의사가 죽는다고 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쓰

임 받고 있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두고 세우신 계획과 일거리가 남아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쳐가며 쓰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분은 전능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부터 변화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 3.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가서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들이 육신의 존재와 가치에 집중할 뿐, 영혼의 소망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들의 무지 몽매하고 짐승 같은 모습에 예수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송장 냄새나는 죽은 나사로를 말씀으로 되살리셨습니다. 부활의 확실한 증거, 입체적이고 실감나는 증거를 연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하시며,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부활의 주역이심을 입증하셨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채로 일어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얼굴에 감겼던 수건도 벗기고, 삼베 염했던 것을 다 풀어 놓으니 걸어나왔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이 유월절에 죽임 당함을 아시고, 내가 죽기 전에 제자들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이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입체적으로 보여 주시기 위하여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때에 우리도 부활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남은 생애를 주님께 드리는,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고 불평함이 없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워싱턴DC.	토요일 오전 7시	주말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310 FM91.5(SCA)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미국 신문 설교			
기독교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 성은복음선교회**

# 부총회장 당선 “한국교회 발전을 위해 크게 쓰임받길 기도합니다.”



**21세기 목회 뉴 트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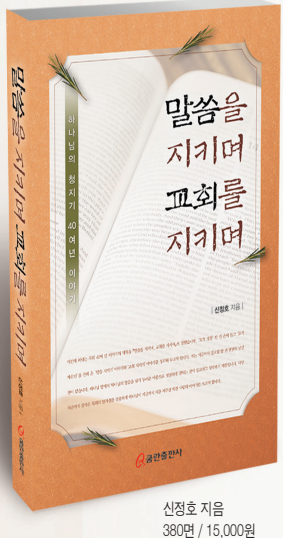
교회 내분과 반기독교 세력의 공격으로 급속하게 파괴되어가는 교회 생태계 현대 사상과 문화의 배후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전략과 음모의 실체

21세기 시대 흐름에 대한 입체적 분석과 창조적 대안을 제시하는 한국교회 미래 목회 대안 보고서!

탈교회 현상이 가속화 되어가는 한국교회에, 이제 커뮤니티 교회를 넘어 네트워크 교회로 나아가라! 이 한 권의 책을 읽으면 미래에 대한 예측과 대안, 실제적인 목회 방법을 알 수 있다.

**소강석 목사**

339면 / 13,000원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 하나님의 청지기 40여 년 이야기 -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는 청지기 사상은'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키므로 오는 교난도 각오해야 한다는 의미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부지런히 전도할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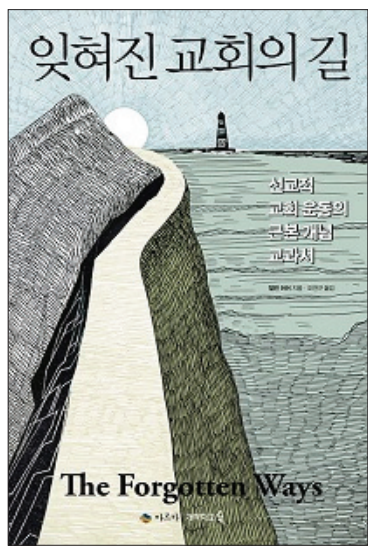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온 전주동신교회와 신정호 목사의 이야기다. 교회 개척을 꿈꾸는 신학생, 목회자, 성도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신정호 목사**

380면 / 15,000원

한글인터넷주소 쿨란, 쿨란출판사 홈페이지 www.coolran.co.kr 주소 서울특별시 중로구 이화장길 6 ☎ 02-747-1004

# “초대 교회의 역동성 회복하라” 신간 『잊혀진 교회의 길』



잊혀진 교회의 길  
앨런 허쉬 저 | 오찬구 역  
아르카 | 512쪽

탈기독교 세계  
시대에 교회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변화시킬 책!

세계적인 선교전략가 앨런 허쉬(Alan Hirsch)의 대표작 ‘잊혀진 교회의 길’(원제 ‘The Forgotten Ways’)이 번역 출간됐다. 이 책은 오늘날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선교적 교회’를 이해하는 데 필독서로 꼽히는 책으로, 현대 선교전략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평가 받는다.

책에서 저자는 현대 교회에 ‘선교적 교회 운동’이 요청된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의 개념과 원리를 소개한다.

그에 따르면 ‘선교적 교회 운동’이란 초대교회를 본보기로 하여 제자도를 철두철미하게 지키면서 교회의 본래적인 역동성, 역동성을 회복하고, 교회 자체가 아닌 ‘선교’에 초점을 맞추어 선교의 풍성한 결실을 맺자는 운동.

저자는 현대 교회가 성장에 실패하고 있는 근본 원인은 초대교회의 모습과 완전히 동떨어지게 된 데 있다면서, 위기 타파의 길은 “신약시대의 감각을 회복”하는 데 있다고 말한다.

특히 “선교적으로 파산한 서구 교회”의 모습을 좇지 말라고 경고한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유행한

‘이머징 교회’ 같은 이른바 ‘서구의 새로운 선교전략’은, 기존의 교회 패러다임을 그대로 둔 채 단지 신학만 조금 수정해 나온 것들이라면서, 이러한 ‘일부 개 보수’로는 중대한 선교 위기를 헤쳐나갈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초기 기독교 운동과 현대 중국 교회의 역사를 주목한다. 이들 교회는 목숨을 위협하는 압박 속에서도 놀라운 성장과 부흥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다. 저자는 이들 교회에서 박해는 교회를 몰살하기는 커녕 “이른바 ‘보내심을 받은 사도’ 같은 사람들의 가장 진실된 본성을 드러내게 했으며 ... 교회의 비본질적인 부산물 더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꺼내 정결하게 만들었다”고 말하면서, 사도적 교회,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가 현대 교회가 갈 길이라고 말한다.

선교전략에 빠지지 않는 갖가지 ‘교회 성장 모델’ 논의에는 회의론을 표한다. 이에 대해 “교회 성장 모델은 전통적이든 현대적이든, 둘 다 수동적”이라며, 이 속에서 교인들은 교회가 제공하는 예배순서를 받아들이기만 하는 ‘소비자’로 전락한다고 비판한다. 이런 교회 모습은 “예수께서 의도하신 에클레시아를 제

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시스템, 문화화, 서비스 같은 말들에 희망을 걸지 말라고 밝힌다.

그는 현재 교회에 필요한 것은 “예수 운동”이라고 강조하면서, “영적으로 활력 넘치는 제자 만들기 문화, 초대교회의 동력원이었던 사도적 사역”을 기필코 회복해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여기서 ‘제자 만들기 문화’는 어떤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다. 서구 교회가 크리스천들의 제자화에 실패한 이유는 제자도를 “교리적 사상에 대한 지적 동화 정도로 축소했기 때문”이라면서, 제자도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외에 다른 방도는 없다”고 할 정도로 철저하게 삶 속에서 제자도를 실천

하는 교회로 탈바꿈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힌다.

‘선교적 교회 운동’의 목표는 철저히 선교다. 교회의 존재 목적의 핵심은 “복음을 전하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라며,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조직 원리여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모이는 교회’가 아닌 ‘흩어지는 교회’를 지향하고, 교회 밖 제3의 장소로 나가서 “성육신화하여 선교” 하라고 말한다.

앨런 허쉬는 마이클 프로스트와 공저한 ‘새로운 교회가 온다’, ‘모험으로 나서는 믿음’ 등을 통해 국내외 선교적 교회 운동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현재 선교단체 ‘FORGE’ 대표 및 코디네이터로 있다.

이민선 기자



앨런 허쉬 © 앨런 허쉬 페이스북

# 낙심의 근본적 이유... ‘사람에게 소망 두었기 때문’ 신간 『왜 낙심하는가?』

조정민 목사의 신간 『왜 낙심하는가?』는 쉽게 상처받고 절망하는 현대인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책이다. 언론인으로 25년을 일하다 뒤늦게 목사가 된 저자는, 세상에서 사람들과 부대껴온 세월을 현실감 있는 위로 속에 녹여낸다.

## 여러 가지 낙심의 상황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로 괴로워하는데, 대개 상처는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온다고 짚어낸다. 생면 부지의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 때문에 힘들다. 심지어는 내가 도움을 준 사람, 내가 돈을 벌게 해 준 사람일 수도 있다. 그들로부터 믿음을 배반 당한 사실을 아는 순간, 마음엔 섭섭함이 반복치고 다시는 사람을 믿기 싫어진다.

별 거 아닌 일이 상처가 되기도 한다. 누군가 ‘이 머저리야, 멍청구리야!’ 하고 욕을 했다고 하자. ‘누구 보고 머저리래?’ 하고 받아치거나 무시하면 그만인데, 온종일 마음에 담아두는 사람도 있다. 하나 좋을 것 없는 그 말을 두 손으로 고이 받고 눈덩이처럼 굴리다, 결국 짓눌려 신음한다.

그런가 하면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음이 될 때도 있다. 영원히 함

께 할 것 같던 배우자가 죽었을 때, 잘 자라줄 것만 같던 자녀가 기대에 어긋났을 때, 마음은 향방을 잃고 표류한다.

저자는 이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찾아오는 마음을 ‘낙심’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떨어질’ 낙(落)에 ‘마음’ 심(心),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낮은 곳으로 떨어진 상태’이다. 비슷한 말로는 실망, 낙담, 상심이 있다.

이 ‘낙심’은 현대인을 지배하고 있는 마음의 하나다. 현대인의 마음병인 스트레스는 낙심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비롯된다. 또 공황장애, 강박장애, 조울증 같은 각종 신경증상 질환의 근저에는 낙심 때문에 겪는 불안이 있다.

신앙인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저자는 “낙심의 문제를 적절히 다루지 못한 탓에 낭패를 보는 신앙인이 의외로 많다. 놀라운 것은, 영적으로 예민하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쉽게 낙심한다는 점이다. 체면상 드러내지 못하고 속앓이를 하다가 신앙이 병든다”고 말한다.

## 낙심한 마음, 다시 일으키려면

그렇다면 어떻게 낙심한 마음을 붙잡아 다시 위로 올려 놓을 수 있

을까?

그러자면 먼저, “나 자신에게 물어라야” 한다. 왜 낙심했는지 그 이유를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보는 것이다. 이때 외부로부터의 메시지는 차단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들려주는 말, 보여주는 이미지는 사람을 낙담케 하고 힘들게 하는 메시지를 포함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저자는 “부정적 메시지의 못매를 맞고 주저앉아 있는 대신, ‘내 영혼아, 대체 어찌자고 낙심하느냐?’고 자신에게 말을 걸어야 한다”고 말한다.

시편의 기자도 그랬다. 시편 42편 11절, 43편 5절은 똑같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라고 적는다.

이런 자문은 청승맞은 독백이 아니다. 세상을 잠시 차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 영혼을 들여다보는 일이다. 저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단독자로서 있을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마음과 영이 건강한 법”이라고 말한다.

다음으로 할 일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이다. 낙심한 이유를 계속 묻다 보면, 그동안 자신이 누구에게 소망을 두었던가를 깨닫게 된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과거, 현재, 미래에도 사랑으로 나와 동행하실 하나님! 아니라, 한계로 가득한 사람에게 기대와 소망을 걸었기에 낙심이 찾아온 것이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기 위해 할 일은 두 가지. “성경 읽기”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주신 것을 끊임없이 회상하기”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다시 마음을 일으킬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어떤 힘들, 고난도 다 이길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사랑과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

저자는 “어려운 일들이 과도처럼 밀려올 때, 낙심의 바다에 빠져 익사하기 전에 자신에게 그 이유를 묻고 나무라보라. 하나님의 은혜에 비추어 자기 자신을 나무라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지녀야 할 태도”라고 말한다.

또 “만약 그리스도인이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려면, 먼저 구원을 누리는 우리가 낙심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일으켜 세울 줄 알아야 한다”며, 소망을 붙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세상에 희망이 돼라고 전한다.

이민선 기자



왜 낙심하는가?  
조정민  
두란노 | 202쪽

인생의 바닥을  
두려워하지마라  
깨지고 부서져도  
돌아갈 곳이 있다!

“건강 보험료 부담은 확실하게 덜어드리고  
혜택은 골고루 받는 아주 괜찮은 헬스케어기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뉴저지 주 벌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프로그램	Complete (컴플릿)	Super(수퍼)	Essential(에센셜)
1인	\$220.00	\$165.00	\$50.00
2인	\$440.00	\$330.00	\$100.00
3인	\$660.00	\$495.00	\$150.00
본인부담금	\$500/year	\$500/year	\$7,500/year
지원금	\$2 Million	\$1 Million	\$150,000
지원내용	의사비, 검사비, 치료비 응급실, 입원, 수술 건강검진(\$1,000)	의사비, 검사비, 치료 응급실, 입원 건강검진(\$500.00)	응급실, 수술, 입원

Altura 는 1995년에 설립된 비영리 선교단체로서 그동안 수만의 회원들의 의료비 지원을 해온 건설한 단체입니다. 이번에 한인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한국 회원들을 위해 더욱 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

한달에 \$165로 최고 1백만불까지 지원,  
의사방문, 검진, 검사, 입원, 수술까지 해결!

- ☑ 의료비 신청 본인이 하지 않음
- ☑ 각 플랜: 응급실 사용 가능
- ☑ 한국 병원에서도 혜택
- ☑ 비 흡연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64세까지)
- ☑ 장례비 보조
- ☑ 그룹 플랜도 가능

·한인지원센터의 상담원들이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한인지원센터

Tel : (714)738-1234 Fax : (714)738-1238  
251 E. Imperial Hwy #410 Fullerton, CA 92835  
email : info.primeh4@gmail.com

문의: 티나 정(tchong.prime@gmail.com)  
그룹문의: 스티븐 정(schong.prime@gmail.com)

\*Prime.ahs.family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정보 및 회원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CBD Hemp Oil 제품으로  
대한민국 식약청 최초 수입승인 제품**

THC Free  
환각기능 없음

Dietary Supplement

# 햄프햄초환

대마추출 건강기능식품 SUPERFOOD PROMISE

햄프햄초환은 예고없이 오는 혈관 질환, 뇌졸중, 심장병,  
치매예방, 신경정신질환, 면역질환, 뇌전증에 탁월한 건강식품!  
당뇨 탈출, 숙변제거의 특효!

신이 내린 항암식물!

**혈관 청소!**  
치매 예방

**암 전이 예방!**  
당뇨 탈출

**면역력 증강!**  
숙변 제거



2달분  
1,800 환  
**\$250** +Tax

MANUFACTURED IN THE USA

## Cannabinoids 대마추출물 Hemp CBD Oil

많은 질병에 사용되는 유명한 자연치료제입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칸나비노이드를 자극해 염증을 줄여주어 암, 뇌전증 치료와 노화방지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GLA는 **미국암협회가 강력 추천하는 항암 식품입니다.** 대마식물에서 추출된 CBD는 중독성이 없으며 환각성을 유발하는 THC성분이 없습니다. 만성통증, 불안증 등 다양한 질병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연구결과로 건강과 웰빙세계에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 햄초는 어디에 좋은가요?

- 1 높은 영양소의 보고**  
90여 가지의 바닷물 속 좋은 미네랄 성분이 그대로 농축되어 있습니다. 채소를 통해서는 섭취가 어려운 요오드는 일일 권장 섭취량의 약 8배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 2 장에 좋다**  
햄초는 장운동을 촉진하는 작용이 있어 변비를 해소하고 장내에 쌓인 숙변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더불어 장내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하는 효능도 있어 꾸준히 섭취하면 전반적인 장 기능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3 심혈관에 좋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액과 혈관의 지방질을 배출해 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 4 당뇨에 좋다**  
햄초는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억제해주며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 당뇨를 예방하고 증상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5 간에 좋다**  
햄초에 들어있는 콜린은 지방간이나 간경변 등과 같은 간질환을 예방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테인 성분이 간의 해독작용을 도와줍니다.
- 6 항암에 좋다**  
햄초에 풍부한 게르마늄은 항암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를 통해 햄초가 간암, 대장암, 유방암 등을 예방하는데 크게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보고 되었습니다.
- 7 식이섬유가 많다**  
햄초 100에는 약 7~8g의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이는 시금치의 10배에 달하는 양이다. 충분한 식이섬유 섭취는 혈당조절과 체중조절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콜린 성분이 장내 중성지방을 수용성 지방으로 바꾸어 체외로 배출시켜줍니다.
- 8 칼슘이 많다**  
햄초에는 100g 당 칼슘 235mg, 칼륨 650mg, 철분 40mg 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성장, 갱년기 여성과 노인들의 골다공증 예방, 전반적인 뼈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그 밖에도 항산화, 피부미용, 두뇌 활동 촉진 등이 있으며, 일본 오히라산장 난치병연구소 이토 소장 보고서 '놀라운 햄초의 효능'에 항염증, 항균, 갑상선 기능 증진, 기관지 건강 개선, 근육통 완화 등의 효능이 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Low Sodium Salt 天然 低鹽

BAJA SEA SALT

**코셔미네랄 천일염**

청정지역 바하 캘리포니아에서 만든 친환경 천일염으로 최고의 품질과 Kosher(코셔) 인증을 획득하여 미국과 유럽이 인정한 제품입니다.

바하천일염 4대 미네랄	일반 가공소금이 문제!
니트륨 Na : Cl	(정제염 - 맛소금, 맛소금)
칼륨 K : Cl	니트륨 (Na)
칼슘 Ca : Cl	의사들이 소금을 먹지 말라는 이유는 니트륨만 들어있는 소금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그네슘 Mg : Cl	

515g **\$30** +Tax

바다의 산삼!

BAJA GLASSWORT POWDER

**바하햄초분말**

청정지역! 바하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된 햄초! 바하햄초분말로 가족의 건강을 챙기세요!

풍부한 식이섬유  
아미노산, 무기질  
해양미네랄 함유!!!

150g **\$30** +Tax

**E.U.M Hemp Cafe**  
☎ (213)386-3896

바하천일염, 바하햄초분말 도.소매 판매합니다.

Westmoreland  
Virgil  
Wilshire Blvd  
Wilshire Pl  
E.U.M Hemp Cafe  
이음햄프카페 전서판매장  
중앙일보

120세 시대에 건강 동반자

1달분 **\$170**

목회자 50% 할인

Dietary Supplement  
**HEMP PLUS+**

2 TIMES A DAY (15 PILLS)  
TOTAL (900 PILLS)

Lowers the Risk of Alzheimer or Parkinson or Stroke

CBD는 신경염증 반응을 감소시키고 신경발생 즉 신경계 조직의 발달을 촉진시킨다.  
CBD가 악화되는 알츠하이머 병의 증세를 완화시킬 수 있으며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올가닉 건강기능식품

알츠하이머·파킨슨·각종 암 예방 포물라

# 햄프플러스

알츠하이머 병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의 침착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CBD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기능이 있다. 항산화, 항염증 그리고 신경보호 및 재생촉진 효과를 보여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을 늦출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CBD는 뇌의 수용체에 작용하여 정신 질환 및 신경계 치료에 다양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킨슨 병에는  
체내 도파민 활성화 손상의 감소, 신경보호, 정신병적 등급향상과 환자의 약물, 공격적 행동 감소의 효능이 있다.

커큐민(Curcumin)추가로 치매의 큰 원인중 하나인 아밀로이드를 분해하는 효과가 있으며 도파민 및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세로토닌의 분비를 증가시켜 준다.

TheHempPlus.com  
RopheCentum, Inc.

세계 보건기구(WHO)가 밝힌 알츠하이머, 파킨슨 병, 각종 암 예방에 효과적인 CBD를 햄프플러스로 경험하세요

TheHempPlus.com  
hemplusorder@gmail.com

**CBD BAJA HAMCHO Inc.** ☎ (213)386-3896, (213)605-2772  
www.hempbiousa.com hempbiousa@gmail.com 3020 Wilshire Blvd. #100, LA, CA 90010